김정일장군님은
조국통일의 구성!
김정일장군님을
통일대통령으로!

통일아리랑

6.15공동선언은
조국통일의 이정표!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열자!

2002년 3월 17일 일요일 ≪통일아리랑≫편집위원회 45호

미국이 핵참화를 들씌우려 한다면 미국땅도 무사치 못할 것이다

≪로동신문≫ 15일부는 핵전략의 초점을 일부 대국들과 저들의 비위에 거슬리는 작은 나라들에 돌리고 ≪유사시≫핵선제공격도 할것이라고 한 부쉬행정부의 이번 핵공격계획은 본질상 랭전시대의 핵전략을 재검토하고 정립한 21세기의 핵전략이라고 지적하였다.

론평의 필자는 미국이 핵무기를 ≪국가안보≫의 ≪기둥≫으로 삼으며 핵무기를 먼저 사용하는 정책을 계속 실시할뿐아니라 그 범위를 작은 나라, 반제자주적인 나라들에로 확대한 사실에 언급하고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부쉬행정부는 력대 선임행정부들이 준수해 온 핵불사용담보공약을 헌신짝처럼 내던지였다. 미국의 기도는 반제자주적인 나라들을 핵위협으로 하나하나 제거해 버리자는 것이다.

미제는 핵전략의 주되는 공격화살을 우리 공화국에 돌리고 여기에서 힘의 대결정책을 실현하려 하고 있다.

미국은 조미기본합의문에서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으며 핵무기로 위협하지도 않는다는 담보를 우리에게 하였다. 그런데 미국이 우리가 핵활동을 동결상태에 두고 있는 때에 우리를 반대하여 핵무기의 사용가능성을 공공연히 운운하고 있는것은 매우 무책임한 행동이 아닐수 없다.

이러한 사태에 대처하여 우리는 미국과 한 모든 합의들을 전면재검토하지 않을수 없게 되였다.

미국이 우리에 대한 핵무기사용을 계속 추구한다면 우리도 부득불 그에 대응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것이다.

우리는 지난 수십년간 미국의 항시적인 핵위협속에서 살아 왔으며 그만큼 핵전쟁에도 만단의 준비가 되여 있다.

만일 미국이 우리에게 핵참화를 들씌우려 한다면 미국땅도 무사치 못할것이다.

조선중앙통신
주체91, 3월 15일

공동선언리행과 관련하여 우리를 헐뜯은 리회창을 단죄

15일부 ≪로동신문≫은 남조선의 ≪한나라당≫ 총재 리회창이 미일상전들의 환심을 사서 권력의 자리를 따 보려고 동분서주하면서 벌리고 있는 민족반역행위를 단죄하였다.

리회창은 얼마전 일본에 가서 6.15공동선언이 리행되지 않고 흩어 진 가족, 친척방문이 계속되지 못하고 있는 책임이 마치 우리에게 있는듯이 허튼소리를 하면서 우리 공화국의 정치체제까지 걸고 들었으며 부쉬의 ≪악의 축≫망발을 적극 지지하는 망발도 서슴지 않았다.

론평의 필자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리회창이 한쪼각의 민족적량심이라도 있고 공동선언을 지지하는 마음이 티끌만큼이라도 있다면 응당 공동선언리행을 악랄하게 반대하는 미국에 항의해야 옳았다. 그런데 그는 공동선언을 유린말살하려는 미국을 추어 주면서 공동선언리행을 위해 온갖 성의와 노력을 다하고 있는 우리를 악의에 차서 헐뜯었다.

리회창이 부쉬의 ≪악의 축≫망발과 대북강경정책을 쌍수로 지지환영해 나선것도 역적만이 할수 있는 행위이다.

리회창과 같은 사대매국노, 민족반역자가 권력의 자리에 들어앉을 때 자기들에게 또 어떤 가혹한 운명이 차례질것인가 하는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남조선인민들은 리회창역도를 절대로 가만 놔두지 않을 것이다.

조선중앙통신
주체91, 3월 15일

조선의 통일을 지지하는 국제적서명운동 계속 진행

6.15북남공동선언을 지지하며 남조선에서 미군을 당장 철수시킬것을 요구하는 국제적서명운동이 여러 나라와 지역기구에서 진행되였다.

에티오피아에서는 3만 4,000여명의 주체사상신봉자들과 교직원, 학생들, 태권도애호가들을 대표하여 여러 단위의 책임자들이 서명문에 수표하였다.

뻬루에서는 뻬루사회혁명당을 대표하여 총비서 빅또르 올리바미겔이, 수리아에서는 100만명의 동맹원들을 대표하여 수리아농민총동맹 위원장 이브라힘 샤미에가 서명문에 수표하였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 노작
2 미국 시엔엔텔레비전방송회사 기자단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세기와 더불어
4 4장 5절 조선혁명군 (2)

칭송
6 제일 큰 사랑 / 정일봉가
6 세계사회주의의 위대한 수호자

한국민족민주전선
7 부시방한반대투쟁을 벌이던 기세로 반미항전의 불길을 높이자
8 총구를 돌려야한다
8 구국의 소리 뉴스 주체91, 3월 15일

조선중앙통신
9 주체91, 3월 15일 보도
10 사상론을 구현해야 창조의 기상 나래친다

김일성종합대학 방송강좌
11 인민군대가 경제건설의 중요 돌파구를 열어나가도록 영도

아리랑뉴스

12 통일연대 1주년 기념식
12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 완성단계
13 부평미군기지 반환 시위
13 정부 1인시위 금지추진에 시민단체 반발
14 ≪오월 시민법정≫에 미국 세운다
14 BBC의 ≪모두 죽여라!≫ 국내방영
14 부시 2단계 테러전 확전결의 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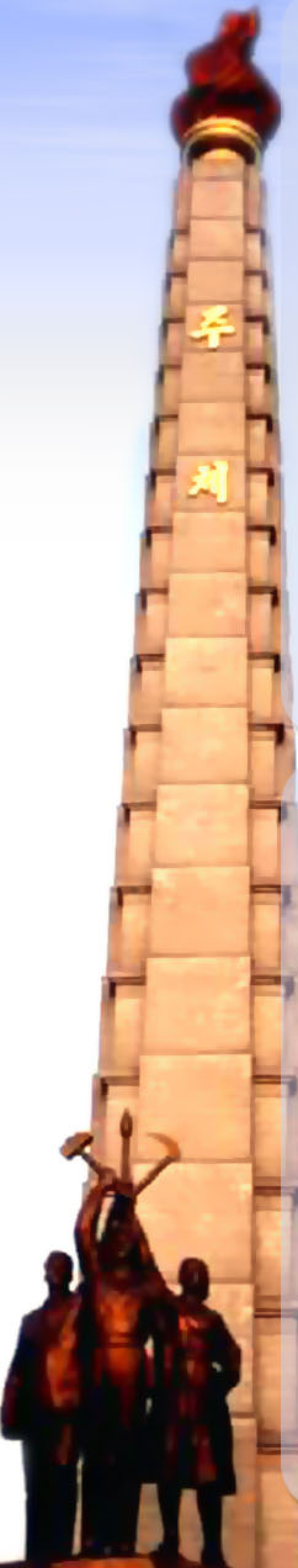
운동강좌
15 청년학생대중조직의 민주주의적 운영 (2)

광고
15 신입생들에게 권고하는 교양서 10선 (4)

조국통일3대헌장
16 민족대단결과 그 구심점 (2)

미국 시엔엔텔레비전방송회사 기자단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발췌)

주체83(1994)년 4월 17일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으며 자국내의 핵개발장소들에 대한 전면적인 국제적 사찰을 거절하고 있다는 미국의 주장으로 하여 조선반도에서 긴장상태가 격화되고 있는데 대하여 세계적으로 신경이 예민해지고 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거나 혹은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까?

지금 미국이 ≪핵문제≫를 걸고 우리에 대한 압력소동을 벌이고 있으나 그것은 아무런 근거도 없습니다. 다 아는바와 같이 우리 공화국은 비핵, 평화애호 국가입니다. 우리에게는 핵무기가 없으며 그것을 만들 의사도 능력도 없습니다. 핵무기는 지금도 우리에게 없지만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조선반도를 비핵화하는 것은 우리 공화국정부의 일관한 정책입니다. 우리는 조선반도를 비핵화하기 위하여 계속 꾸준히 노력할 것입니다.

◇ 국제원자력기구는 최근시기에 진행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개발장소에 대한 사찰시기에 제기된 문제들에 대한 자기의 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이 사찰에 관하여 일어난 분쟁에 대한 당신의 견해는 무엇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어떤 조건하에서 자기의 핵시설들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의 전면사찰을 허용하려 합니까?

우리는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서의 탈퇴를 선언한 이후에도 우리의 핵활동의 투명성을 입증하기 위한 선의의 조치로서 국제원자력기구의 필요한 사찰을 계속 받아들였습니다. 사찰과정에 일부 문제들이 제기되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핵무기전파방지조약탈퇴 효력발생을 임시정지시킨 특수한 상황에서 제기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과도적 상황입니다.

조선반도의 핵문제가 원만히 해결되는가 못되는가 하는 것은 유관측들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노력하는가 하는데 달려있습니다. 공정성을 원칙으로 하는 국제기구가 그 누구의 부당한 요구에 추종한다면 핵문제는 언제 가도 해결될 수 없을 것입니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핵무기전파방지조약의 성원국으로 계속 남아있으려고 합니까?

우리는 지난해 3월 미국과 국제원자력기구의 부당한 처사와 압력에 대처하여 민족의 존엄과 나라의 자주권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 조치로서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서의 탈퇴를 선포하였습니다. 그후 조미사이에 회담이 진행되어 공동성명이 채택되고 조선반도의 핵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회담을 계속하기로 합의한 조건에서 우리는 핵무기전파방지조약으로부터의 탈퇴효력을 임시정지시켰습니다. 그런 것만큼 앞으로 우리가 핵무기전파방지조약 성원국으로 계속 남아있겠는가 하는 문제는 미국이 우리와의 합의사항을 어떻게 이행하는가 하는데 달려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미국측에 핵문제를 일괄타결방식으로 해결할 데 대한 합리적인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우리는 조미회담이 공정하고 평등한 기초위에서 진행되어 핵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 만일 유엔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제재를 가한다면 당신은 이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려고 하십니까?

미국이 유엔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하여 우리 공화국에 ≪제재≫를 가한다면 이것은 우리의 자주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적대행위로 됩니다. 우리 인민은 나라의 자주권이 침해당하는 것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을 것이며 응당한 대응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 이렇게 긴장된 정세하에서 당신의 생각에는 현 위기에 대한 개괄적인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나라의 정세는 핵문제로 하여 매우 긴장합니다. 조선반도의 현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최선의 방도는 우리와 미국이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압력이나 위협은 결코 문제해결의 방도로 될 수 없으며 그것은 정세를 파국에로 몰아가는 결과밖에 가져올 것이 없습니다. 조미사이의 회담을 통해서만 조선반도의 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조선반도의 핵문제를 해결하고 긴장상태를 완화하려는 것은 우리의 변함없는 입장입니다. 미국이 진실로 조선반도의 평화와 조선의 평화통일을 바란다면 우리 공화국에 대한 압력소동을 그만두고 우리와의 대화에 성실한 자세로 나와야 할 것입니다.

◇ 주석님께서 앞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국사이의 관계가 개선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이와 관련하여 클린턴대통령에게 하실 말씀이 없으십니까?

조선과 미국사이에 지속되고 있는 불미스러운 관계를 청산하고 정상적인 관계를 맺는 것은 두 나라 인민들의 공통된 염원이며 현시대의 요구입니다. 냉전에서 벗어나 화해와 친선, 협조에로 나아가는 국제관계의 현추세가 조미사이의 관계에도 응당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주, 평화, 친선을 대외정책의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는 우리 공화국정부는 우리 나라의 자주권을 존중하고 우리 나라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나라들과는 사회제도에 관계없이 선린관계를 맺고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켜나가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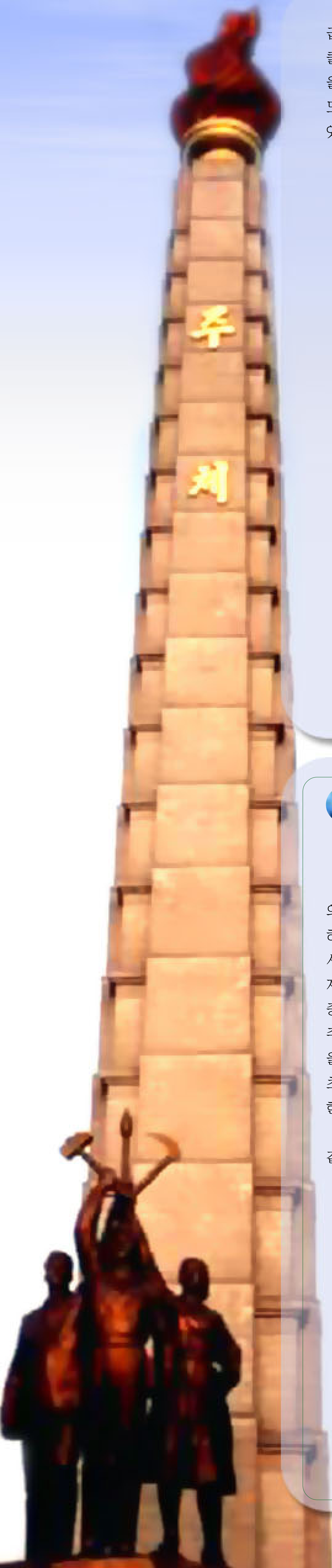
우리는 미국이 우리와의 대결관념을 버리고 선택의 자유를 존중하는 원칙에서 우리 나라와의 관계를 정상화할 용의를 가지고 나온다면 조선과 미국이 벗으로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미국측에 이러한 정치적 의지가 있는가 없는가 하는데 있습니다.

우리는 클린턴대통령이 시대의 추세에 맞게 국제문제를 해결해나갈 의지를 가진다면 조선반도에서 냉전의 유물을 청산하고 조미관계를 개선하는데 의의있는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 세계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과 팔레스티나해방조직, 남아프리카의 만델라와 데클레크 등 오랫동안 원쑤로 있던 사람들이 대결로부터 협상과 평화에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당신은 예컨대 평양으로 고위

➡

우리는 조국통일문제를 해결하는데서 남의 본을 따려고 하여서는 안됩니다. 무슨 일에서나 남의 식을 그대로 본따서는 일이 바로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영도해오는 전행정에서 언제나 주체를 세우고 모든 일을 우리 식대로 하였습니다.



급미국대표단을 초청하든가 혹은 후날에 클린턴대통령이나 김영삼과의 수뇌자회담을 진행하는 것 같은 방법으로 조선에서도 유사한 돌파구를 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냉전이 종식된 오늘의 추세에 맞게 지난날 적대관계에 있던 나라들과 세력들이 협상과 평화에로 움직이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미수뇌자회담이 진행되어 조선문제해결의 돌파구를 여는데 기여하자면 그것이 실현될 수 있는 조건과 분위기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협상할 수 있는 조건이 성숙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회담이 성립될 수도 없고 설사 성사된다고 하더라도 결실을 가져올 수 없습니다. 미국이 조선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성실한 태도로 나온다면 우리와 클린턴대통령과의 회담이 열릴 수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남조선당국자와의 회담에 대하여 말한다면 우리는 이미 오래전에 북과 남사이의 대결상태를 해소하고 조국통일의 방도를 협의하기 위하여 북남최고위급회담을 제기한바 있습니다. 남조선의 현 당국자도 집권초기에 우리와 만나자고 하였으나 실지에 있어서는 외세에 추종하면서 계속 대결소동을 벌이고 있으며 최근에는 북남최고위급의 특사교환을 위한 회담도 결렬상태에 몰아넣었습니다. 남조선당국자들이 진실로 우리와의 회담을 할 의사가 있다면 속에 품은 칼을 내놓고 민족자주의 입장에서서 화해와 통일의 길로 나와야 합니다.

. . .

◇ 당신은 조선이 당신의 생전에 통일되리라고 믿으십니까? 만일 그렇게 된다면 누구의 영도하에 통일되리라고 믿습니까?

우리는 우리 대에 조국통일을 실현하며 후대들에게 통일된 조국을 넘겨주기 위하여 투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쉽게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조국통일의 앞길에는 난관과 장애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조국통일의 전도에 대하여 낙관하고 있습니다.

조국통일은 민족지상의 과업이며 온 민족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조선민족이 통일을 갈망하고 있으며 조국통일의 기운은 날로 더욱 높아가고 있습니다.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를 가진 단일민족이 외세에 의하여 인위적으로 갈라진 자기 조국을 통일하려는 한결같은 지향과 거족적인 투쟁을 가로막을 힘은 없습니다.

조선의 통일은 누구의 영도하에 실현된다기보다 민족공동의 지향과 노력에 의하여 실현된다고 보아야 할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조국통일을 위한 민족공동의 강령이 있습니다.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대원칙은 북과 남이 공동으로 합의한 조국통일의 근본원칙입니다.

우리는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개 제도, 두개 정부에 기초한 연방제방식의 통일방안을 내놓았으며 이것은 가장 공명정대하고 현실적인 방안으로서 북과 남, 해외 동포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찬동을 받고 있습니다.

온 민족이 통일을 바라고 통일역량이 날로 더욱 강화되고 있으며 민족공동의 통일강령이 있는 이상 우리나라의 통일은 민족의 단합된 힘과 공동의 노력에 의하여 반드시 실현되고야말 것입니다.

(끝)

정치사전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국통일의 3대원칙에 기초하여 련방국가를 형성하는 방법으로 조국을 통일할데 대하여 제시하신 통일방안.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하신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에서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과업을 밝히시면서 조국통일의 3대원칙에 기초하여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을 창립할데 대한 새로운 방안을 내놓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은 북과 남이 서로 상대방에 존재하는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인정하고 용납하는 기초우에서 북과 남이 동등하게 참가하는 민족통일정부를 내오고 그밑에서 북과 남이 같은 권한과 의무를 지니고 각각 지역자치제를 실시하는 련방공화국을 창립하여 조국을 통일할것을 주장합니다.≫(≪**김일성**저작선집≫ 8권, 373페지)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은 7.4남북공동성명에서 북과 남이 공동으로 천명한 숭고한 리념과 원칙에 기초하고 있으며 나라의 북과 남에 오랜 기간 다른 제도가 존재하여 오고 서로 다른 사상이 지배하고 있는 우리 나라의 구체적현실로부터 출발한 가장 현실적이며 합리적인 조국통일방안이다.

련방국가의 통일정부는 북과 남의 같은 수의 대표들과 적당한 수의 해외동포대표들로 구성되는 최고민족련방회의와 그 상임기구인 련방상설위원회로서 북과 남의 지역정부들을 지도하며 련방국가의 전반적인 사업을 관할한다. 통일정부는 전 민족의 단결, 합작, 통일의 념원에 맞게 공정한 원칙에서 정치문제와 조국방위문제, 대외관계문제를 비롯하여 나라와 민족의 전반적리익과 관계되는 공동의 문제들을 토의결정하며 나라와 민족의 통일적발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북과 남 사이의 단결과 합작을 실현하며 북과 남에 있는 사회제도와 행정조직들, 각당, 각파, 각계각층의 의사를 존중히 여기며 어느 한쪽이 다른 쪽에 자기 의사를 강요하지 못하게 한다. 북과 남의 지역정부들은 련방정부의 지도밑에 전 민족의 근본리익과 요구에 맞는 범위에서 독자적인 정책을 실시하며 모든 분야에서 북과 남 사이의 차이를 줄이고 나라와 민족의 통일적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련방국가의 국호는 이미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 진 우리 나라 통일국가의 이름을 살리고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북과 남의 공통한 정치리념을 반영하여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이라고 하며 통일국가는 어떠한 정치군사동맹이나 쁠럭에도 가담하지 않는 중립국가로 되여야 한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그것이 조국통일의 과도적대책으로 취해 진 림시적인 련합인것이 아니라 그 창설자체가 조국통일을 실현하는것으로 된다는것과 중앙정부의 기능을 수행하는 주권국가라는 점에서 종전의 남북련방제와 구별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은 우리 민족의 자주적발전을 첫 자리에 놓고 모든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북과 남의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공평한 립장에서 서로 련합하여 평화적으로 통일국가를 세울수 있게 하는것으로 하여 우리 나라의 현 조건에 맞는 유일하게 정당한 조국통일방안이다.

2권 제4장

새로운 진로를 탐색하던 나날에

1. 손정도목사
2. 준엄한 봄
3. 카륜회의
4. 첫 당조직-건설동지사
5. 조선혁명군
6. 혁명시인 김혁
7. 1930년 여름
8. 두만강을 건너
9. ≪리상촌≫을 혁명촌으로
10. 잊을 수 없는 사람들

5. 조선혁명군 (1)

내가 국내에 들어간 형권삼촌네 무장소조의 활동소식을 제일 처음으로 접한 것은 신문지상을 통해서였다. 할빈에 있을 때인지 어디에 있을 때인지 똑똑히 기억되지 않으나 동무들이 흥분해서 들고 온 신문을 보니 풍산땅에 4명의 무장단이 나타나 순사부장을 쏴제낀 후 북청에서 넘어오는 자동차를 빼어타고 후치령으로 사라졌다는 내용의 기사가 실려있었다.

신문을 가져온 동무는 국내에서 총성을 울린 것이 통쾌하다고 입을 다물지 못했지만 나는 오히려 그 총성때문에 불안을 금할 수 없었다. 어떻게 되어 국내진출의 초입이라고 할 수 있는 풍산에서 총성을 냈는가?

나는 그때 삼촌의 불같은 성미를 새삼스럽게 생각하였다. 어쩐지 삼촌이 그 불같은 성미를 걷잡지 못하고 총소리를 낸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원래 우리 삼촌은 어려서부터 바람벽도 문이라고 차고나가는 남아다운 기질을 가지고 있었다.

형권삼촌 하면 먼저 타개죽사발에 대한 일화가 생각난다. 내가 만경대에 있을 적 일이나 삼촌의 그때 나이가 아마 열한살 아니면 열두살쯤 되었을 것이다. 그때 우리 집에서는 저녁마다 수수타개죽을 먹었다. 수수타개죽이란 수수를 껍질채로 망에 갈아서 끓인 것인데 맛도 없었지만 제일 고통스러운 것은 삼킬 때마다 수수껍데기가 목구멍을 따끔따끔 찌르는 것이었다. 나도 타개죽은 질색이었다.

그런데 하루는 형권삼촌이 밥상앞에 마주앉았다가 할머니 갖다놓은 뜨거운 타개죽 사발을 이마로 받아넘겨 엎질러놓았다. 어떻게나 세게 받아넘겼던지 죽사발은 봉당에 날아가 떨어지고 삼촌의 이마에는 상처가 나서 피가 흘렀다. 아직 철이 다 들지 않은 때이니 죽으로 끼니를 잇지 않으면 안되는 가난에 화가 나서 타개죽 사발에 분풀이를 한 것이다.

할머니는 ≪네가 밥타령을 하는 걸 보니 사람구실을 하기 글렀다≫고 하면서 삼촌을 보고 되게 욕하였지만 뒤에 돌아앉아서는 눈물을 지었다.

형권삼촌은 철이 들면서 이마의 허물자리에 신경을 썼는데 중국에 들어와 우리 집에서 생활 할 때에는 앞머리를 좀 길러가지고 그 허물자리를 가리우고 다니였다.

형권삼촌이 중국에 들어온 것은 우리가 림강에서 살때였다. 아버지가 삼촌을 우리 집에 와있게 한 것은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였다. 아버지가 교육자이기 때문에 삼촌이 우리 집에 와있으면 학교에 가지 않고서도 중학과정까지는 뗄 수 있었다. 장차로는 삼촌을 혁명가로 키우자는 것이였다.

아버지가 생존해계실 때까지는 형권삼촌이 우리 아버지의 영향과 통제를 받으면서 비교적 건전하게 성장하였다. 그러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신 다음부터는 자기를 걷잡지 못하고 마음내키는 대로 행동하기 시작했다. 이마로 타개죽사발은 받아넘기던 어린 시절의 성미가 그대로 되살아나 우리들을 아연케하였다. 형권삼촌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시자 집에 마음을 붙이지 못하고 림강이요, 심양이요, 대련이요 하면서 사방으로 떠돌아다녔다.

우리 가정내막을 좀 알고 있는 사람들은 삼촌이 고향에 가서 부모들이 정해준 녀자하고 약혼을 하고 돌아왔는데 그 약혼녀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들떠다닌다고 하였다. 물론 그것도 리유라고 할 수는 있었다. 그러나 삼촌이 들뜨게 된 중요한 원인은 우리 아버지의 서거에서 받은 절망과 비분을 묵새기지 못하였기 때문이었다.

내가 화성의숙을 중퇴하고 집에 돌아가니 삼촌은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술에 취한 사람처럼 들뜬 생

파발리경찰관 주재소습격전투를 조직지휘하시는 불요불굴의 공산주의혁명투사 김형권동지

무장소조를 이끌고 국내에 진출하신 김형권동지
예술영화 ≪누리에 붙는 불≫

활을 계속하고 있었다. 그때 가정은 어머니의 삯빨래와 삯바느질로 생기는 보잘 것 없는 수입에 의하여 겨우 유지되는 참으로 어려운 형편이였다. 우리 가정형편을 보기가 딱했던지 리관린도 얼마간의 돈과 쌀을 가지고 우리 집에 와서 어머니의 일손을 돕고 있었다.

삼촌으로서는 사실 돌아간 우리 아버지를 대신하여 할 일이 없느냐 하면 그렇지도 않았다. 그 약방에 약은 많지 않았지만 잘 운영만 하면 살림에 얼마간의 보탬은 할 수 있었다. 그런데 삼촌은 그 약방을 한번도 돌보지 않았다.

솔직히 말하여 나는 그때 삼촌의 소행을 두고 아주 민망스럽게 생각하였다. 그래서 하루는 집에 들어앉아 삼촌에게 남길 장문의 편지를 썼다. 정의감이 제일 강하다고 하는 중학시절이어서 도리에 어긋나는 것을 보면 웃사람이고 뭐고 참지 못하였다. 그 편지를 삼촌의 베개밑에 밀어넣고 길림으로 떠났다.

어머니는 그때 내가 편지로 삼촌을 비판하는 데 대해서 매우 못마땅해하였다.

≪삼촌이 지금은 저렇게 어데도 마음을 의탁하지 못하고 구름처럼 떠돌아다니지만 때가 되면 제골에 들어서느니라. 아무렴 네 삼촌이 근본이야 잊겠니. 설령 돌아다니다가 싫증나면 집으로 돌아오지 않으리, 그러니 비판이고 뭐고 다 그만두어라. 조카가 삼촌을 타이르다니.≫

어머니는 이런 말로 나를 설득하였다. 참으로 우리 어머니다운 사고방식이였다. 그래도 나는 기어이 편지를 남기였다.

한해후 길림육문중학교를 다니다가 방학이 되어 무송에 돌아와보니 형권삼촌은 놀랍게도 안착된 생활을 하고 있었다. 어머니의 예언이 맞아떨어진 셈이였다. 삼촌이 내가 써두고 간 편지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입밖에 내지 않았지만 나는 그 편지가 삼촌에게 적지않은 자극을 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해 겨울에 삼촌은 백산청년동맹에 가입하였다.

우리가 무송을 떠난 후 삼촌은 백산청년동맹을 확대하는 사업에 깊이 빠져들고 있었다. 이듬해에는 동무들의 보증으로 공청에도 가맹하였다. 이렇게 되어 삼촌은 혁명대오에 들어서게 되었는데 1928년부터는 공청의 지시를 받아가며 무송, 장백, 림강, 안도 지방의 백산청년동맹 사업을 지도하였다.

이웃들이 신문을 보고 풍산땅에서 왜놈순사부장을 쏴죽인 사건이 터졌다고 떠들어대는 바람에 만경대고향집에서도 형권삼촌이 체포되었다는 것을 알게되었다.

우리 할아버지는 그 소식을 듣고 ≪이거 또 제 형이 그러더니 동생도 일본놈을 쏴죽이는구나. 나중에는 어떻게 되든지 하긴 잘한다.≫고 하였다.

세월이 얼마간 흐른 뒤에야 나는 풍산땅에서 국내공작소조가 벌인 활동전모에 대한 소식을 입수할 수 있었다.

악질적인 순사부장 오빠시를 처단하는 김형권동지
예술영화 ≪누리에 붙는 불≫

압록강을 건넌 소조원들은 단천쪽으로 나가다가 1930년 8월 14일 풍산 파발리 부근의 황수원들쭉같에서 잠시 지체하였는데 거기서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악질경관 오빠시 순사부장의 의심을 받게 되었다.

그놈은 1919년부터 풍산지방에 와서 조선사람들의 수족을 얽어맨 악질경관이였다. 그래서 그 고장사람들은 놈에게 오빠시라는 별명을 붙이였다. 오빠시에 대한 이 고장 인민들의 원성이 대단히 높았다.

소조원들은 주재소 앞을 지나갈 때 오빠시는 일행을 주재소로 불러들이였다. 형권삼촌은 주재소에 들어가자마자 그놈을 단호하게 처단해버린 다음 인민들앞에서 공개적인 반일연설을 하였다.

그날 수십명의 군중이 형권삼촌의 연설을 들었다. 비전향장기수로 세계에 널리 알려진 전 인민군 종군기자 리인모도 그때 파발리에서 그 연설을 들었다고 한다. 소조원들은 적들의 추격을 받으면서도 농민폭동의 불길이 일어났던 지역들에 접근하려고 시도하였다.

우리는 그당시 단천농민폭동을 매우 중시하였다. 폭동이 휩쓴 지역들에서는 반드시 대중운동의 지도자들이 있기 마련이고 정치사상적으로 각성되고 동원된 혁명적 군중의 조직된 대부대가 있기마련이였다. 적이 폭동지역에서 주동분자들을 색출하는데 혈안이 되었다면 우리는 폭동군중 속에서 왕청의 오중화, 룡정의 김준, 온성의 전장원과 같은 핵심들을 찾아내려고 하였다. 그런 핵심들과 련계를 가지고 좋은 영향을 주면 국내혁명투쟁을 앙양시킬 수 있는 지반을 닦을 수 있었다.

단천지구를 개척하는데 성공하면 그 지방을 거쳐 성진, 길주, 청진 방면으로도 뻗칠 수 있었고 함흥, 흥남, 원산을 거쳐 평양으로도 진출할 수 있었다.

우리가 형권삼촌이 인솔하는 국내공작조에 단천농민폭동의 주인공들을 찾아가라는 과업을 준 것은 그때문이였다.

일제와 맞서 싸우자고 호소하는 김형권 동지
예술영화 ≪누리에 붙는 불≫

일제놈들의 승합차를 빼앗는 김형권 동지 일행
예술영화 ≪누리에 붙는 불≫

파발리에서 총소리를 내고 떠난 무장소조일행은 봉오골어귀에서 풍산경찰서 사법계 주임이 탄 승합차를 억류하고 그자의 무장을 해제한 다음 주임과 그밖의 승객들에게 반일선전을 하였으며 련이어 리원군 문앙리 일대에 진출하여 배덕골과 대바위골을 비롯한 여러 지점에서 숱구이 노동자들을 상대로 정치사업을 하였다. 어려운 조건이였으나 투쟁은 항상 적극적이였다. 무장소조는 그후 북청방면으로 진출하다가 대오를 두개 조로 편성하였다.

형권삼촌과 정웅이 한조가 되고 최효일과 박차석이 한조가 되었다. 두조는 홍원읍에서 만나기로 약속한 다음 제각기 다른 방향으로 진출하였다.

형권삼촌은 정웅과 함께 9월 초 적수색대가 도사리고 있는 북청군 대덕산의 광제사를 습격하고 홍원, 경포방향으로 진출하다가 정부암 부근에서 적들과 조우하여 전진경찰관주재소 소장을 사살하였다.

(내일 계속)

일화

제일 큰 사랑

1969년 가을에 있었던 일입니다. 영화 ≪사회주의 조국을 찾은 영수와 영옥이≫를 사상예술적으로 우수한 작품으로 만들어 평양에서 열리게 되는 반미세계기자대회에 내놓을데 대한 **김일성**주석님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작품의 작가와 연출가는 영화의 마지막 수정작업을 했는데 연출가는 일부 장면들을 수정대본대로가 아니라 제 마음대로 만들어냄으로써 영화제작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엄중한 결함을 발로시켰습니다.

어느날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연출가와 작가를 부르시어 연출가를 엄격히 비판하셨습니다.

자기 과오의 엄중성을 통절히 느낀 연출가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제가 그만...≫하고는 말끝을 맺지 못했습니다.

이런 그를 옆에서 보며 안절부절 못하고 있던 작가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워낙 제가 영화대본을 제대로 쓰지 못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연출가는 그래도 영화를 만드느라고 뛰었지만 대본이 신통치 못하다보니 애를 먹었을 것입니다. 반미세계기자대회에 내놓기 어렵게 된데는... 전적으로... 저의 책임이...≫라고 하다가 그만 중둥무이하고 말았습니다.

장군님께서 놀라움과 의혹이 섞인 안색을 지으시고 작가를 유심히 바라보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분께서는 아픈 마음을 진정하시려는듯 아무 말씀도 없이 깊은 생각에 오랫동안 잠겨계시더니 ≪됐소. 오늘은 더 말하지 맙시다.≫하시고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정신없이 사무실에 돌아온 그는 그날도 다음날도 자신을 검토했습니다. 그는 그분앞에 서있었을 때의 자기 사상상태를 깊이 검토해보니 번개처럼 머리를 때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장군님께서 연출가의 과오가 엄중하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를 극진히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엄하게 비판하신 것인데 연출가가 혼자 비판받게 된 것을 미안하게 여기면서 두둔했으니 이것이야말로 연출가를 그분의 자애로운 사랑의 품에서 떼어내려고 한 망령된 행동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런 자책의 실마리를 찾은 작가는 그후 장군님을 만나뵙고 잘못을 깨달았다고 아뢰고 자기를 비판해주실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는 작가를 연민의 정이 어린 눈길로 바라보시던 장군님께서는 아직 깨달은 것 같지 않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령님의 교시가 관철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걸린 고리를 혁명적으로 풀 생각을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동무는 당의 의도를 어기고 영화완성에 지장을 준 연출가를 비판할 대신 두둔하고 있으니 말이 됩니까. 수령님의 교시 관철에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는 그런 서푼짜리 인정은 소용없습니다. 비판에 대한 관점이 바로 서지 않았습니다. 집에 가서 더 검토하시오.≫

장군님의 말씀은 비판은 사람들을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의 한길에서 정치적 생명을 빛내이며 보람찬 삶을 꽃피우게 하는 참된 사랑이라는 것을 깨우쳐주시는 가르치심이였습니다.

혁명하는 사람들이 동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동지의 정치적 생명에 손상이 없도록 극진히 보살피고 엄격히 타일러주어야 한다는 요구였습니다. ≪귀한 자식 매로 기른다≫는 말이 있듯이 동지들사이의 사랑은 자식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였습니다. 동지의 결함을 보고도 타일러주지 않거나 가까운 동무라고 하여 결함을 싸고든다면 그 결함을 조장시켜 결국 동지를 헤어날 수 없는 구렁텅이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판이야말로 참된 사랑이며 사랑중에서도 가장 큰 사랑입니다. 이것이 **김정일**장군님의 사랑의 철학입니다.

송가

정일봉가

최학순

정 - 정다웁게 소백수 흐르는 곳에
정일봉이 솟아서 빛을 뿌리네
정을 안고 남녘이 우러러 보는
정일봉은 겨레의 희망봉일세

일 - 일만자식 품고 선 어머니런가
일만산악 거느려 높이 솟았네
일망무제 누리에 봄을 펼치며
일광광채 뿌리는 태양봉일세

봉 - 봉위에서 남북의 하늘열리고
봉아래서 삼천리 지맥뻗었네
봉우리에 새겨진 장군님존함
봉화처럼 타올라 통일봉일세

장군님 탄생하신 백두고향집
온 세상에 자랑하는 정일봉일세

흠모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는 세계사회주의의 위대한 수호자이시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사회주의 건설의 역사적 교훈과 우리 당의 총 노선≫, ≪사회주의는 과학이다≫, ≪사상사업을 앞세우는 것은 사회주의 위업수행의 필수적 요구이다≫등 수많은 불후의 고전적 노작들을 발표하시어 사회주의 운동의 앞길을 뚜렷이 밝혀주시었으며 조선식 사회주의를 더욱 강화 발전시키시어 사회주의 위업수호의 숭고한 모범을 창조하시었다.

오늘 여러 나라 당 지도자들은 정력적인 사상이론활동과 탁월한 영도로 사회주의 위업을 승리의 한 길로 이끄시는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를 ≪사회주의 승리의 상징≫, ≪사회주의 운동의 기수≫, ≪사회주의의 위대한 수호자≫로 높이 칭송하고 있다.

페루좌익혁명동맹 전국집행위원회 총 비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사회주의를 사상 이론적으로 옹호하고 세계인민들이 나아갈 앞길을 환히 밝혀주고 계신다. 그이께서는 수많은 불후의 고전적 노작들을 발표하시어 사회주의의 진리성과 정당성을 논증하시였으며 온갖 반동들의 반사회주의 공세에 사상이론적 타격을 가하시었다. 그이께서는 또한 사회주의 건설에서 사상사업을 앞세워야 할 필요성을 이론적으로 해명하시였으며 세계혁명가들에게 중요한 지침을 마련해주시었다. **김정일**동지의 모든 노작들은 세계혁명가들과 진보적 인민들이 나아갈 길을 밝힌 사상 이론적 지침으로 되고 있다.

네팔노동자농민당 중앙위원회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탁월한 사상이론활동으로 현 시기 세계인민들이 나아갈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인류가 사회주의에로 나아가는 것은 막을 수 없는 역사발전의 법칙이라는 것을 천명하시고 동서방의 그 어느 정치가나 사상가도 사회주의 건설의 역사적 교훈에 대한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불후의 고전적 노작들을 발표하시어 세계 진보적 정당들과 인민들에게 사회주의 운동을 재건하고 전진시켜 나갈 수 있는 힘의 원천을 안겨주시었다.

새유고슬라비아공산당 지도부성원 윌꼬위츠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미국을 비롯한 서방제국주의자들의 반사회주의 책동이 우심하게 감행되고 있는 속에서도 강철의 의지와 혁명적 원칙성, 탁월한 지략과 천리혜안의 예지로 놈들의 책동을 걸음마다 짓부수고 조선의 사회주의를 철통같이 수호하시었다. 오늘 조선노동당과 조선인민이 제국주의자들의 온갖 도전에도 끄떡없이 사회주의 발전의 한 길로 힘있게 전진하고 있는 경이적인 사실은 위대한 영도자의 실력을 실천으로 보여주신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영도와 무비의 담력을 떠나서 생각할 수 없다.

브라질10월8일혁명운동 총 비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세계혁명가들이 우러러 격찬하고 있듯이 **김정일**동지는 인류의 최고두뇌이시며 우리 시대 사회주의 운동의 위대한 영도자이시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정치, 경제, 문화, 군사의 모든 분야에 능통하시고 영도의 나날에 특출한 업적을 이룩하시었다. 수령이 위대할 때 나라도 위대해지고 혁명도 사회주의도 승승장구한다는 것은 조선이 역사와 세계 앞에, 시대와 인류 앞에 증명한 진리다.

따쥐끼스딴공산당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김정일총비서동지는 조선의 사회주의 뿐 아니라 세계사회주의 운동이 올바른 투쟁의 길을 따라 나아가도록 이끄시는 위대한 영도자이시다. 그이께서는 여러 나라에서 사회주의가 좌절되고 자본주의가 복귀된 후 세계사회주의 운동의 전 과정을 과학적으로 통찰하시고 사회주의 건설, 당건설, 정권건설, 사상사업, 청년사업 등 모든 측면에서 역사적인 경험과 교훈을 명철하게 밝히시었으며 세계사회주의 운동의 가장 정확한 길을 가리켜주시었다. **김정일**동지를 모시어 사회주의는 수호될 것이며 세계적 규모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이 승리적으로 전진할 것이다.

부시방한반대투쟁을 벌이던 기세로 반미항전의 불길을 높이자

청년학생들과 함께 - 구국의 소리 주체91 3월 13일~15일

지난 2월 우리 청년학생들과 각계 민중이 굳게 결집하여 전개한 부시방한반대투쟁. 문화방송이 ≪일반시민들의 우려와 반발의 기운들이 정도를 넘어서고 있다. 심각한 기운이 느껴진다≫고 전한 바도 있지만 정말이지 그 투쟁의 나날들은 우리 민중의 날로 격렬해지는 반미의지를 남김없이 과시한 것으로 해 사람들의 가슴속에 귀중한 추억으로 남아 있어요. 그 추억속에 떠올려지는 감동의 화폭들을 새겨보는 우리 열혈 청춘들의 가슴속에 더욱 굳게 자리매김돼야 할 건 무엇일까요. 그건 부시방한반대투쟁을 벌이던 기세로 반미항전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 올릴 운동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에 관해 김현규씨 모시고 얘기 나눠드리죠. ≪부시방한반대투쟁을 벌이던 기세로 반미항전의 불길을 높이자≫.

사회자 : 안녕하십니까.
김현규 : 네, 안녕하세요.
사회자 : 지금 우리 청년학생들은 말이죠 지난 2월 부시방한반대투쟁을 벌이던 기세로 반미투쟁을 더욱 힘차게 전개해갈 의지를 안고 투쟁의 봄을 맞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에 관해 얘기좀 했으면 합니다.
김현규 : 지난 기간 우리 민중은 이 땅을 불법강점하고 식민지 예속민의 뼈아픈 굴종을 강요하고 있는 미국을 반대해 힘찬 투쟁을 벌여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지난 2월 부시방한반대투쟁때처럼 반미투쟁이 범국민적인 차원에서 가열차게 전개된 적은 일찍이 없었다고 봅니다. 그 거족적인 반미항전은 곧 날로 강렬해지는 우리 민중의 자주통일의지에 대한 일대 시위이기도 합니다.
사회자 : 부시방한을 계기로 각계 민중 특히 우리 청년학생들속에서 반미항전의지가 얼마나 높이 과시되었는가는 각종 언론보도를 통해 다 알고 있는 문제아닙니까. 그래서 그에 관한 얘기는 약술하고 앞으로 청년학생들이 반미투쟁을 벌여나가는데 도움을 주는 측면에서 부시방한반대투쟁에서 주목되는 몇가지 점들을 살펴봤으면 합니다.
김현규 : 부시방한을 계기로 진행된 청년학생들의 투쟁을 살펴볼 때 눈에 띄게 나타난 점의 하나는 한총련 중앙과 각대학 총학생회들에서 더많은 학생들을 반미투쟁에 궐기시키기 위해 그들의 흥미에 맞는 작업들을 조직하고 전개한 거라고 봅니다.

다 아시는 일이지만 부시방한반대투쟁때처럼 한총련 중앙과 각 대학 총학생회들에서 성명과 호소문, 격문들을 많이 발표한 적이 없었습니다. 대체로 이런 운동은 그 전례가 없는 것으로써 대중을 투쟁으로 궐기시키는데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투쟁에 진입할 때 격문이나 호소문, 성명과 같은 문서들을 발표하는 건 승리로 되고 있습니다. 이번 투쟁에서 이같은 문건들이 더욱 많이 나옴으로써 부시의 악의 축발언으로 격상된 학생대중의 심장을 더 뜨겁게 달구어 주었으며 그들을 반미성전에로 불러일으키는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사회자 : 청년학생들속에서는 부시방한저

지선봉대활동을 비롯해서 여러가지 실천투쟁도 활발히 벌어졌는데요. 그것이 학생운동조직의 역할을 떠나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이 아닙니까.
김현규 : 옳은 말씀입니다. 조성된 정세추이에 대한 민감한 분석에 기초해 한총련 중앙에서 부시방한저지선봉대를 묶고 그들이 반미투쟁을 앞장에서 진행하도록 하며 각계 시민사회단체들의 참여속에 진행된 이른바 그림자투쟁과 전국 동시다발집회에서 청년학생들이 그들의 역할을 하게 한 것 등은 언제나 선봉에서 청춘의 기백과 용맹을 과시하려는 학생대중의 흥미에 걸맞는 것으로써 부시방한반대투쟁을 힘있게 전개해 나가는 추동력으로 됐습니다. 이런 청년학생들이였기에 서울 미상공회의소점거를 비롯한 여러 시위투쟁들을 활발히 진행함으로써 부시에게 비난과 조소를 주고 미국에 큰 타격을 안겼습니다.
사회자 : 부시방한반대투쟁을 되새겨보면서 우리가 다시금 폐부에 새겨 안아야할 진리가 있는데 그것이 단결의 중요성이라고 봐요. 603개 시민사회단체들이 합동기자회견을 갖고 부시방한반대 7대 요구사항을 발표하며 공동투쟁을 벌인 사례는 우리 민중의 지나온 자주민주통일운동속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김현규 : 이번 투쟁과정을 체험하면서 우리 청년학생들과 각계 민중은 단결의 중요성을 더욱 절감했고 정의로 불타고 애국으로 심장이 끓어번질 때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대중은 물론 정치인, 경제인, 종교인, 언론인 등 각계층 인사 모두가 한마음으로 나서 결집될 수 있다는 걸 더욱 뚜렷이 새겨 안았습니다.
사회자 : 그건 우리 청년학생들이 반미투쟁을 벌여나가는데서 지침으로 삼고 적극 장려해야할 귀중한 진리이고 자랑찬 투쟁방식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어제날의 투쟁이 줄기찼다면 오늘은 그보다 더 광폭한 투쟁을 벌이는게 반미성전에 나선 운동가들의 자세가 아니예요. 한반도 점거, 지배하려는 미국의 침략적 야망이 더욱 노골화되고 있는 오늘의 현실은 우리 청년학생들과 각계 민중들은 부시의 방한반대투쟁을 벌였던 기세를 조금도 늦추지 않고 더욱 과감한 투쟁을 벌일걸 요구하고 있는데요. 그러자면 어떤 문제들에 모를 박고 투쟁해야겠는지 그에 관해서도 얘기됐으면 합니다.
김현규 : 우리 청년학생들이 반미자주의식으로 더욱 굳게 정신무장하고 그것을 각계 민중들속에 굳게 심어주는 활동이 우선돼야한다고 봅니다. 지금 날로 확산고조되는 우리 민중의 반미투쟁은 우리 민중의 자주의식의 발현으로써 그것이 얼마나 강렬한가를 실증해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침략적, 약탈적 본성을 각계 민중에 더욱 철저히 심어주고 더 많이 반미항전에 나서게 된다는 건 지나온 반미항전사가 웅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학생들은 여러가지 다채로운 활동들을 벌여나가면서도 특히는 방한기간에 보여준 부시의 침략적, 반통일적 정체를 가지고 각계 민중의 반미의식을 드높이기 위한 작업을 더욱 활발히 전개해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미국의 대북강경책동때문에 6.15공동선언이행을 위한 남북간의 대화와 협력, 교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이산가족들의 상봉마저도 차단되고 있다는데 대해 각계 민중속에 널리 인식시키는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회자 : 최근 쟁점으로 되고 있는 투쟁들에 결합하는 건 범국민적인 반미항전의 불길을 더욱 힘차게 지펴올리기 위한 중요한 투쟁방식이라고 보는데요.
김현규 : 옳은 말씀입니다. 미군기지되찾기, 양민학살진상규명, 영구주둔반대 등과 같은 투쟁들은 민중의 사활과 직결되는 문제로써 그러한 투쟁들에 결합하는 것은 더많은 민중을 반미항전에 궐기시키고 미국에 타격을 안겨주려는 *****. 그와 함께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6.15공동선언을 말살하려는 미국과 친미사대매국세력의 인위적 분열책동을 분쇄하기 위한 투쟁도 더욱 강도높게 벌여나가야 합니다.
사회자 : 조국통일의 암적 존재, 우리 민중의 불행과 고통의 근원인 미국에 철퇴를 안기기 위한 거족적인 반미항전을 주위에서 **시키는데서 풀어야 할 문제, 실천해야 할 투쟁과제 등 그 외에도 많다고 봐요. 그에 관해서는 앞으로 여러 기회에 계속 얘기나누도록 하고 오늘은 이것으로 마감할까 합니다. 좋은 얘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현규 : 감사합니다.

총구를 돌려야한다

국군장병들에게 - 구국의 소리 주체91, 3월 9일~10일

이런 시가 있죠. ≪지금은 남의 땅,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이건 민족수난기의 시인 이상화의 시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입니다. 일제 강점시기로부터 우리 민중의 가슴속에 지금까지도 찾아오지 않는 봄, 그것은 바로 민족분열의 화근인 미국침략자들때문에 세기를 넘어 이어지는 비극이잖아요. 그래서 이번엔 울산에 사는 재향군인 이준모씨의 글 이철씨 보내드립니다.

민족자주통일의 새 시대를 맞이한 우리 민족의 가슴마다에는 자주와 통일에 대한 열망이 날이 갈 수록 더더욱 뜨겁게 불타오르고 있다. 6.15남북공동선언의 기치를 높이 들고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올해엔 어떻게 하나 민족자주통일의 결정적 국면을 열어나가려는 것은 해내외 온 겨레의 지향이고 의지이다.

그런데 부시미행정부는 평화와 통일에 대한 우리 민족의 의지에 도전해 한반도의 군사적 대결과 긴장상태를 격화시키고 기어이 북침전쟁을 도발하려고 책동하고 있다.

부시가 대량살상무기개발이니 악의 축이니 뭐니하고 터무니없이 걸고들면서 이북을 앞으로 확대할 반테러전의 대상으로 정하는 망발을 한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부시의 이 호전적인 망발은 실제상 이북에 대한 선전포고로써 민족자주통일을 염원하는 우리 민족은 물론이고 정의와 평화를 지향하는 세계의 수많은 나라들과 인민들의 분격을 자아내고 있다. 이른바 반테러전의 모델을 이북에로 확산시키려는 미국의 모험적인 전쟁책동에 대한 우려와 지탄의 목소리는 미국내에서도 울려나오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강경보수세력들은 저들의 대북침략정책과 군사적 강권정책을 지탄, 배격하는 내외의 정당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대신 이북을 기어이 선제공격하려는 모험적인 기도를 계속 드러내고 있다.

얼마전에도 부시는 기자회견에서 이북이 대량살상무기개발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최악의 경우를 염두해 둘 수밖에 없다느니 그 어떤 행동도 서슴지 않겠다는니 하는 등의 대북선전포고나 다름없는 망발을 또다시 했다. 최악의 경우니 뭐니 하는 것이 이북을 선제타격하겠다는 수작이라는 것은 명백하다. 부시의 이러한 망발은 지금 실천단계에 들어서고 있다.

얼마전 한미연합사령부는 해마다 별도로 진행돼온 연합전시증원훈련과 독수리훈련을 연계해 함께 실시하기로 했다고 공식발표했다. 이 훈련은 주한미군외에도 미본토와 일본 그리고 괌도 등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수만명을 포함해 한미연합군 50만명이상이 참가하는 종전의 팀스피리트전쟁연습의 재판으로써 위험천만한 북침전쟁책동이 아닐 수 없다. 이것은 바로 부시의 호전적인 악의 축망발이 실천단계에 이르고 있음을 실증해주고 있는 것이다.

부시의 연발되는 호전적 폭언과 심상치않은 군사적 움직임을 두고 지금 온 겨레는 치솟는 증오와 분격을 금치 못해하고 있고 세계는 우려심을 안고 한반도정세를 지켜보고 있다.

미국은 이미 지난 세기 50년대 우리 민족에게 가장 야만적인 전쟁을 강요했었다. 6.25전쟁에서 수치스러운 참패를 당한 미국은 거기에서 응당한 교훈을 찾을 대신 ≪푸에블로호사건≫과 ≪판문점사건≫과 같은 극히 위험한 군사적 도발행위를 끊임없이 감행하고 모략적인 북의 핵문제를 꾸며내면서 한반도정세를 전쟁접경에로 몰아가고 있다.

지금 호전적인 부시행정부가 들고 나오는 대북침략정책과 군사적 강권정책은 지난 시기의 미국의 대북침략정책의 연장이며 그 수법과 도수는 더더욱 포악해지고 무분별해지고 있다.

미국의 북침야망은 추호도 변함이 없다. 우리 민족에게 또다시 참혹한 전쟁의 재난을 들씌우려고 날뛰는 미국침략자들이야말로 우리 민족의 철천지원수이다.

국군장병 여러분은 동족압살의 침략전쟁을 일으키려는 미국에 추종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총구를 이북 형제들에게가 아니라 겨레의 주적인 미국침략자들에게 돌려대야 할 것이다.

구국의 소리 뉴스

주체 91, 3월 15일

통일운동을 활성화하자
광주시의 통일운동가 모임

광주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 통일운동가의 모임이 3월 10일 시내 모처에서 **김정일**장군님의 통일의지와 함께 6.15공동선언의 기치따라 통일운동을 활성화해 나갈 결의를 밝혔습니다.

조직책 강모교수의 기조발언에 이어 여러 회원들이 토론한 토론들에서는 이 땅에 6.15공동선언발표이후 좋게 발전하던 남북간의 관계가 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으로 하여 경색국면에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준엄한 현실을 심중하게 검토분석하고 통일운동을 반미운동과 밀착시켜 벌여나갈데 대해 피력했습니다.

통일운동가들은 특히 **김정일**장군님의 자주적 통일방략과 그 구현인 6.15공동선언은 새 세기 조국통일의 유일한 이정표라고 하면서 장군님을 통일의 태양, 통일의 장군으로 높이 칭송했습니다.

모임에서는 6.15공동선언발표 2돌을 맞으며 이북에서 제안한 3대 호소, 3대 제의에 적극 호응하여 통일운동을 더욱 과감히 벌이기 위한 결의를 채택했습니다.

미국 핵전쟁계획규탄성명
범민련 남측본부

범민련 남측본부는 미국의 무모한 핵전쟁계획이 드러난 것과 관련해 12일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은 미국이 ≪핵태세검토≫라는 보고서를 통해 최악의 살상무기인 핵무기를 앞세워 전인류를 일거에 참화에로 몰아넣겠다는 계획을 명백히 밝힘으로써 저들이 그동안 말해왔던 전략무기감축 등이 자신의 야수성과 폭력성을 가리우는 기만술책이였다는 것을 확인시켜준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성명은 미국은 전세계를 핵참화에로 몰아넣는 핵전쟁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성명은 핵무기까지 앞세운 채 전인류를 대상으로 피의 협박을 서슴지 않는 미국이야말로 진정 악의 축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성명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부시가 말했던 대화해결 등의 말이 얼마나 허울적인 사탕발림이였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성명은 우리 민족은 미국에 우리의 민족적 과업을 핵무기로 방해할 수 있는 권리를 준 적이 없으며 이러한 미국의 침략적 행위를 결코 보고만 있지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회창의 일본행각을 친일매국행각으로 규탄

각계에서 한나라당 이회창의 일본행각을 친일매국행각으로 강력히 규탄하고 있습니다. 통일운동단체의 한 인사는 이회창이 친미행각을 한데 이어 이번에는 친일행각을 했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회창은 지난번 미국행각시 미국의 강경보수파들을 찾아다니면서 6.15남북공동선언이행에 제동을 걸어줄 것과 대북강경정책을 계속 실시해줄 것을 손발이 닳도록 빌고 다니면서 각계의 규탄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국민들은 이회창을 친미사대주의분자, 매국역적이라고 낙인찍었다. 그런데 이회창은 이번에 일본에 날아가 북의 대량살상무기니 미사일문제니 하면서 또다시 남북대결을 부추기는 역적행위를 감행했다. 지금 일본놈들이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실현해보려고 우리나라에 대한 재침책동을 노골적으로 감행하고 있는 때에 이회창이 일본상전들을 찾아가 한일공조를 역설한 것은 일본의 재침기도를 부추겨 한국을 미일의 이중 식민지로 만들려는 용납못할 매족배족행위가 아닐 수 없다. 이회창은 미일의 **자이다. 이회창은 미일상전들의 지시를 받아 대통령감투를 써보려하지만 어리석기 짝이 없는 망동이다. 민족반역아를 대통령에 뽑을 사람이 과연 어디에 있겠는가. 이회창은 어리석은 망상을 버리고 정계에서 하루빨리 퇴진해야한다.≫

일제시기에 반일운동을 했다는 서울 동대문구에 사는 한 노인은 이회창의 일본행각에 분노를 금치 못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회창의 일족은 원래 애비부터 일제의 검찰기관에서 일하면서 숱한 독립운동가를 밀고해 죽게한 친일파였다. 친일의혹이 제기돼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데도 이회창이 숙적인 일본을 찾아간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이다. 더욱이 용서할 수 없는 것은 전민족이 외세를 반대하고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통일을 이룩하자고 하는 때에 이회창이 미일상전들을 찾아다니며 한미일공조를 떠들고 나선 것이다. 이회창은 외세의 침략을 불러오는 앞잡이이다. 역적은 역사와 민족의 이름으로 마땅히 처단해야한다.≫

공격대상에 미국 포함된다
러시아

러시아는 미국의 ≪핵태세검토≫보고서와 같은 핵공격계획을 갖고 있으며 공격대상에는 미국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드보르틴 러시아 군사아카데미미핵전략연구소장은 모스크바에서 열린 비공개 정책발표회에서 핵무기사용계획은 그의 일상업무라고 밝혔습니다. 드보르틴소장은 미국이 핵강국 러시아를 공격대상에 넣은 것과 관련해 러시아에도 비슷한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이북 미술작품전 뉴져지에서 진행

이북 미술작품전이 조선미술가협회의 주최로 2월 24일부터 28일까지 미국의 뉴져지에서 진행됐습니다. 재미동포전국연합회 성원들과 동포들, 유엔주재 이북 대표와 대표부 성원들이 전시회장을 참관했습니다. 재미동포들은 이북의 미술발전 수준에 경탄을 표시하면서 이런 훌륭한 미술작품전을 자주 조직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

주체 91(2002)년 3월 15일

평양에서 제20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이 진행되게 된다

인류공동의 가장 경사스러운 명절인 태양절에 즈음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도 평양에서 제20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이 성대히 진행되게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90돐이 되는 뜻 깊은 시기에 진행되는 이번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은 주체시대의 새 력사를 펼쳐 주시고 인류의 자주위업실현을 위한 길에 쌓아 올리신 경애하는 수령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높이 칭송하며 세기를 이어 빛내여 가려는 세계 진보적인민들과 예술인들의 한결 같은 지향과 념원을 반영하여 진행되는것으로 하여 더욱 의의 깊은 세계적인 예술축전으로 된다. 축전은 경애하는 수령님의 혁명위업을 빛나게 계승발전시켜 나가시며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사회주의조선의 부강번영과 자주적인 새 세계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을 정력적으로 이끌어 나가시는 21세기의 태양이신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업적과 령도의 현명성, 고매한 풍모에 대한 인류의 다함없는 칭송의 노래가 높이 울려 퍼지게 되는것으로 하여 보다 뜻깊게 장식될것이다.

세계 5대륙의 60여개 나라에서 오는 국제국내콩클수상자들과 명배우들로 구성된 90여개의 예술단, 교예단 그리고 해외동포예술단들과 우리 나라 예술인들이 참가하는 이번 축전무대들에는 성악, 기악, 무용, 교예 등 다채로운 종목들이 오르게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주체의 영원한 태양으로 높이 모시려는 인류의 열화 같은 흠모의 정이 뜨겁게 분출되는 가운데 진행될 이번 축전은 자주, 평화, 친선의 리념밑에 세계 여러 나라 인민들과 예술인들사이의 친선과 단결, 문화적교류와 협조를 더욱 강화발전시키는데서 중요한 계기로 될것이다.

김정일최고사령관 고 리두익의 령전에 화환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일**최고사령관께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이며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인 조선인민군 차수 리두익의 서거에 깊은 애도의 뜻을 표시하여 14일 고인의 령전에 화환을 보내시였다.

고 리두익의 령구를 찾아 조의 표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이며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인 조선인민군 차수 리두익의 서거에 즈음하여 당 및 국가지도간부들과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들, 항일혁명투사들, 당, 무력기관, 정권기관, 성, 중앙기관 일군들, 인민군장병들, 각계층 인민들, 해외동포들이 14일 서장구락부에 안치되여 있는 고 인의 령구를 찾아 깊은 애도의 뜻을 표시하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위대한 **김정일**령도자께서 보내신 화환이 령구옆에 놓여 있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과 항일혁명투사 일동, 인민무력부, 성, 중앙기관, 평양시내 당, 정권기관, 조선인민군 부대들, 군사학교들 등의 명의로 된 화환들이 진정되였다.

조객들은 생애의 마지막순간까지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에게 무한히 충실하였던 고인을 추모하여 묵상하였다.

그들은 고인의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조의를 표시하였다.

전국농근맹초급일군열성자회의 진행

전국농근맹초급일군열성자회의가 13일과 14일 평양에서 진행되였다.

회의에서는 농근맹초급조직들의 전투적기능과 역할을 높여 동맹원들을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 끝없이 충직한 혁명전사로 키우며 농업생산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켜 쌀로써 강성대국건설에 적극 이바지하기 위한 과업과 방도들이 토의되였다.

회의참가자들은 먼저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서 주체61(1972)년 2월 16일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제2차대회에서 하신 연설 ≪농업근로자동맹의 중심과업에 대하여≫를 록음으로 청취하였다.

회의에서는 농근맹중앙위원회 승상섭위원장의 보고와 농근맹초급일군들이 토론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농근맹초급조직들의 전투적기능과 역할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서 일대 전환을 일으켜야 한다고 지적하고 우리 수령, 우리 사상, 우리 군대, 우리 제도제일주의를 농근맹사업에 철저히 구현하기 위한 투쟁을 힘 있게 밀고 나갈데 대하여 말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원회 김중린비서와 관계부문일군들이 회의에 참가 하였다.

농근맹중앙위원회 42차전원회의 진행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중앙위원회 제42차전원회의가 14일 평양에서 진행되였다.

전원회의에서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조선로동당의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어 나가기 위한 농근맹조직들의 과업에 대하여 토의하였다.

승상섭위원장의 보고에 이어 토론들이 진행된 전원회의에서는 해당한 결정서가 채택되였다.

남에 대한 의존은 망하는 길

≪로동신문≫ 15일부는 외세에 의존하는 나라는 자기의 주견과 신념을 내세우지 못하게 되고 남의 풍에 놀아 나며 결국은 망하게 된다고 강조하였다.

신문은 개인필명의 글에서 지난 시기 사회주의를 건설하던 동유럽나라들의 실태가 그것을 보여 주고 있다고 하면서 그 나라들의 사태는 자주성을 견지하면 살고 남에게 의존하면 사대주의에 빠지고 혁명과 건설을 망친다는 뼈 저린 교훈을 주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신문은 외세에 대한 의존심을 버리고 자주성을 견지하는것은 오늘 제국주의자들의 교활한 책동과 관련하여 더욱 중요하게 나서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신문은 사회경제적난관이나 민족분쟁의 재난을 겪고 있는 나라들은 그 해결방도를 자체로 찾아야 하며 제국주의자들의 ≪원조≫나 ≪처방≫에 절대로 기대를 걸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조선혁명의 실천적경험은 자주적립장과 주체성을 지킬 때 나라의 자주권과 리익을 지킬수 있고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빛내일수 있다는것을 똑똑히 보여 주고 있다고 신문은 지적하였다.

신문은 자주성을 지향하는 인민들은 아무리 엄혹한 난관과 시련에 부닥쳐도 자주적신념, 주체성을 잃지 말아야 하며 자주의 길로 변함없이 걸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김일성주석은 진보적인류의 자애로운 어버이

조선녀성과 련대하는 일본부인련락회

≪나의 일생에서 가장 행복한 때가 있었다면 그것은 경애하는 **김일성**주석을 만나 뵈옵던 잊을 수 없는 나날들일것이다. ≫

이것은 얼마전 조선을 방문한 조선녀성과 련대하는 일본부인련락회 대표 시미즈 스미꼬가 기자회견에서 한 말이다.

김일성주석의 접견을 받던 나날들을 감회깊이 되새겨 보게 된다고 하면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인류력사에 위대한 **김일성**주석 같으신 걸출한 인민의 수령은 일찌기 없었다.

정녕 그이는 뜨거운 조국애와 인간애, 인류에 대한 사랑을 천품으로 지니신 희세의 위인, 진보적인류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시였다.

그이의 한생은 조국과 인민, 인류를 위한 성스러운 위업에 불멸의 자욱을 남기신 20세기의 가장 걸출한 위인의 빛나는 한평생이였다.

조선의 통일과 평화를 위한 국제련락위원회 창립 25돐기념집회

조선의 통일과 평화를 위한 국제련락위원회 창립 25돐기념집회가 9일 빠리에서 진행되였다.

집회에는 조선의 통일과 평화를 위한 국제련락위원회 명예위원장들을 비롯한 각계 인사들과 국제기구대표들이 참가하였다.

집회에서는 조선의 통일과 평화를 위한 국제련락위원회 창립 25돐에 즈음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를 비롯한 여러 나라 정당, 단체들 그리고 국제기구들에서 국제련락위원회앞으로 보내여온 축전들이 소개되였다.

집회에서는 국제련락위원회 서기장 기 듀프르가 보고를 하였으며 프랑스주재 조선총대표와 여러 나라 대표들이 축하연설을 하였다.

보고자와 연설자들은 지난 기간 국제련락위원회가 20여차례의 국제적인 행동깜빠니야와 조선문제에 관한 40여차례의 국제 및 지역회의를 조직진행하는 등 다양한 활동으로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위업에 이바지한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특히 그들은 위대한 **김정일**령도자께서 애국애족의 대용단으로 북남최고위급상봉을 마련하시고 6.15북남공동선언을 채택하심으로써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의 앞길에 밝은 전망이 열리게 된데 대하여 일치하게 강조하였다.

그들은 최근 미국대통령 부쉬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적대시정책과 호전적인 망발들을 련발하면서 조선의 북남사이의 관계를 격화시키고 있는데 대하여 폭로규탄하고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련대성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벌려 나갈 결의들을 표명하였다.

집회끝에 련환공연과 기념연회가 진행되였다.

사상론을 구현해야 창조의 기상 나래친다

로동신문 사설 주체91, 3월 15일

우리 조국은 사상의 강국이며 우리 당은 사상론을 틀어 쥐고 혁명과 건설을 승리에로 령도하는 위대한 향도자이다.

사상의 위력으로 만난을 헤치고 승승장구해 온 우리 혁명은 오늘 사상제일주의 구호를 높이 추켜 들고 새로운 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고 있다. 우리는 혁명과 건설이 보다 높은 단계에 올라 선 현실적조건에 맞게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사상교양사업을 더욱 심화시켜야 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사람들의 사상이 기본이며 사람들의 사상에 의하여 모든것이 결정된다는 사상론을 주장합니다. ≫

사상론은 주체사상의 원리를 구현한 당사상사업지침이다.

사상이 모든것을 결정한다. 사람들을 먼저 사상의 강자, 신념의 강자로 키우고 그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발동할 때 못해 낼 일이 있을수 없다.

사상론을 틀어 쥐고 나가면 역경도 순경으로, 불가능도 가능으로 전변시킬수 있으며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기적을 낼을수 있다는것은 우리 혁명의 실천적경험이 보여 주는 고귀한 진리이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일찌기 우리 당사업을 령도하시던 첫 시기부터 사상중시로선을 일관하게 틀어 쥐고 혁명과 건설을 승리에로 이끌어 오시였다. 혁명의 북소리, 속도전의 진공나팔소리높이 로동당시대의 일대 전성기를 펼친 지난 세기 70년대와 80년대 사회주의대건설의 장엄한 영웅서사시는 우리 당의 사상론이 안아 온 자랑찬 결실이다. 우리는 20세기 마지막년대의 준엄한 시련도 총대와 함께 사상의 위력으로 돌파하고 승리자의 영예를 높이 떨칠수 있었다.

오늘 우리 혁명은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다. 21세기는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령도밑에 이 땅우에 주체의 강성대국이 일떠서 자랑 떨치게 될 거창한 창조와 변혁의 시대이다. 혁명의 폭풍우를 과감히 헤치며 창조와 변혁의 대진군을 힘차게 다그쳐 나가기 위해서는 사상론을 틀어 쥐고 사상사업을 더욱 개선강화해 나가야 한다.

사상론을 틀어 쥐고 사상교양사업을 더욱 강화하는것은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선군시대의 사상정신적풍모를 지닌 참다운 혁명가로 키우기 위한 중요한 사업으로 된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선군사상, 선군정치는 21세기의 시대적요구를 반영하고 준엄한 시련속에서 그 정당성과 생활력이 검증된 주체혁명의 백승의 무기로, 우리 시대의 공인된 사조로 되고 있다. 혁명과 건설의 모든 사업이 선군의 원칙에서 진행되고 위대한 선군사상이 전면적으로 승리하는 오늘 사람들의 사상정신적풍모를 시대가 요구하는 높이에 올려 세우자면 결정적으로 사상사업을 끊임없이 심화시켜야 한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정치를 신념으로 받드는 견결한 투사로 준비시키자고 하여도 그들을 당의 선군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켜야 하고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우리의 일심단결을 더욱 철통같이 다지고 온 사회에 혁명적기백과 전투적랑만이 차넘치게 하기 위해서도 누구나 혁명적군인정신으로 살며 투쟁하도록 사상공세를 진공적으로 벌려야 한다. 사상을 기본으로 틀어 쥐고 사상사업을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끊임없이 심화시킬 때 사람들의 사상정신적풍모에서 새로운 전환이 일어 나고 우리 혁명은 선군의 기치 따라 승리하는 불패의 혁명으로 그 위력을 더 높이 떨칠것이다.

사상론을 틀어 쥐고 사상교양사업을 더욱 강화하는것은 강성대국건설의 새로운 비약을 위한 총 진군이 힘 있게 벌어 지는 오늘의 현실의 중요한 요구이다.

21세기 강성대국건설은 투철한 사회주의신념과 불 타는 애국적헌신성을 지닌 인민들의 사상적힘에 의하여 건설되는 새로운 높은 단계의 사회주의건설이다. 사상제일주의구호를 높이 들고 사상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야 우리 식, 우리의 힘과 지혜로 당이 내세운 강성대국건설의 웅대한 목표를 하루빨리 점령할수 있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사상교양사업을 심화시켜 우리 당의 사상과 방침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누구나 확고한 민족자주정신과 애국주의정신, 새 세기의 요구에 맞는 투쟁기풍과 일본새로 살며 투쟁하도록 할 때 강성대국건설의 모든 전투장마다에서 세상을 들었다 놓는 위훈이 창조되게 될것이다.

새 세기의 앞길을 개척해 나가는 우리 혁명의 앞길은 의연히 간고하고 정세는 그 어느 때보다도 복잡하고 첨예하다.

오늘 제국주의자들의 강권과 전횡은 세계적판도에서 더욱더 로골화되고 있으며 우리 식 사회주의를 허물어 버리기 위한 원쑤들의 책동은 더욱 악랄해 지고 있다. 현실은 반제계급교양을 비롯한 사상교양사업을 그 어느 때보다도 강화할것을 요구하고 있다.

사상진지만 든든하면 제국주의자들의 도전이 아무리 악랄해도 두려울것이 없고 경제강국건설도 문제가 없다.

우리는 사상론자들이다. 사상사업에서는 순간의 답보나 침체도 있을수 없고 끊임없이 심화되여야 한다는것이 우리 당의 일관한 립장이다. 각급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고난의 행군≫, 강행군의 어려운 시련도 사상의 힘으로 이겨 내고 사상의 위력으로 강성대국건설의 돌파구를 열어 놓은것처럼 우리 당의 사상론을 틀어 쥐고 사상사업을 끊임없이 심화시켜 나가야 한다.

≪우리는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사람들의 사상이 기본이며 사람들의 사상에 의하여 모든것이 결정된다는 사상론을 주장합니다. ≫

주체사상교양을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더욱 심화시켜 나가야 한다.

주체사상은 우리 혁명의 천하지대본이며 사회주의위업수행의 영원한 생명선이다. 주체사상이 가리키는 길에 영원한 승리와 영광이 있다는것은 우리 인민이 실생활체험을 통하여 간직한 철의 신념이다. 우리는 아무리 세월이 흐르고 세기가 바뀌였다고 하여도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이 가리키는 길에서 순간의 탈선도 있을수 없다.

우리는 주체사상을 뿌리로 하여 선군정치가 나오고 주체사상을 구현하는 투쟁속에서 일심단결도, 우월한 사회주의제도도 생겨 났다는것을 똑똑히 인식하여야 한다. 모든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근로자들속에서 주체의 세계관을 세우기 위한 원리교양과 주체사상이 구현된 우리 혁명실천을 통한 교양사업을 진공적으로 밀고 나가야 한다.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을 우리 당의 선군로선으로 무장시키는것은 현 시기 사상교양의 주되는 과업이다.

우리 당의 선군혁명로선은 주체혁명위업을 완성하는데서 우리 당이 견지하고 있는 기본전략적로선이다.

당조직들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선군혁명령도의 길에서 쌓아 올리신 불멸의 업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기 위한 교양사업을 생동한 실물과 자료를 가지고 실속 있게 벌려 나가야 한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우리 당의 선군정치의 정당성과 불패의 위력을 깊이 인식하고 온 사회에 총대중시기풍을 확고히 세우며 혁명적군인정신과 투쟁기풍을 적극 따라 배우도록 하여야 한다.

민족적자존심을 높이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민족적자존심은 자기 민족의 존엄을 귀중히 여기는 정신이며 그것을 끝까지 지키려는 높은 자각과 의지이다. 우리는 오늘의 세계에서 민족적자존심이 없이는 망국노의 운명을 면치 못한다는것을 명심하고 민족적자존심을 높이기 위한 사상사업을 계속 강화하여야 한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 령토가 크고 인구수가 많은 나라가 대국이 아니라 사상이 강하고 단결된 나라가 대국이라는 주체적관점, 작은 나라도 능히 대국을 건설할수 있고 진정한 대국은 사회주의강성대국이라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상을 깊이 심어 주어 **김일성**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빛내여 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사람들속에 국가와 사회의 주인이라는 태도, 나라의 번영에서 자신의 행복을 찾는 관점을 확립하여 모든 사람들이 이악하고 성실한 로동을 바쳐 높은 로력적성과를 이룩하도록 하여야 한다.

새 세기 강성대국건설은 치렬한 계급투쟁을 동반한다.

오늘 제국주의자들은 우리 식 사회주의에 대한 갖은 악선전을 일 삼고 있으며 우리 공화국에 대한 침략책동을 더욱 로골화하고 있다. 우리는 조성된 정세를 예리하게 주시하며 자기의 계급적본분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한다.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이 계급투쟁의 진수를 명심하고 언제어디서나 계급적원칙, 반제투쟁원칙을 철저히 지키도록 하여야 한다.

제국주의자들의 사상문화적침투에 언제나 경각성을 높여 우리 내부에 제국주의 사상문화와 날라리풍이 조금도 스며 들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우리 식의 생활양식을 확립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리며 낡은 사회의 도덕과 생활인습을 뿌리 뽑기 위한 투쟁도 강하게 벌려야 한다.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구체적현실에 발을 붙이고 모든 형태의 사상교양사업을 참신하고 실효성 있게 해나가야 한다.

사상사업에서 낡은 재래식방법을 없애고 항일유격대식선전선동방법을 적극 구현해 나가야 한다. 사상사업에서 만능의 처방이란 있을수 없다.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언제나 들끓는 현실속에서 격식과 틀이 없이 화선식으로 대중의 심장을 틀어 잡는 선전사업을 하여야 한다. 당선전일군들을 비롯한 모든 일군들은 자신들의 정치실무수준을 끊임없이 높이는것과 함께 창조적인 사색과 진지한 탐구로 대중의 심리와 준비정도에 맞는 사상교양방법을 찾아 내여 좋은 열매를 거두어 들이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간편하고 기동적이며 전투적인 선전선동방법을 능란하게 활용하여야 한다.

모든 당조직들에서는 사상사업을 당위원회적인 사업으로 틀어 쥐고 당의 사상제일주의구호를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진공적으로, 전투적으로 벌려 나가야 한다. 특히 당선전일군들과 5호담당선전원들, 선동원들이 우리 당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대중속에 깊이 들어 가 그들을 적극 불러 일으키는 유능한 선전교양자, 선동가로서의 역할을 다해 나가야 한다.

(끝)

인민군대가 경제건설의 중요 돌파구를 열어나가도록 영도

≪특강≫ 역사에 길이 빛날 선군 영장의 고난의 행군, 강행군 영도 제21회

학사 리광선생 - **김일성**종합대학 방송강좌 주체91, 3월 15일

안녕하십니까?

전번시간에는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선군음악의 새시대를 개척해 나가신데 대해서 강의해 드렸습니다. 이 시간에는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인민군대가 경제건설의 중요 돌파구를 열어나가도록 현명하게 영도하신데 대해서 강의해드리겠습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 선군정치의 기치아래 인민군대를 영원한 수령님의 군대, 당의 군대로 무적 필승의 강군으로 더욱 튼튼히 꾸리시면서 경제건설의 중요돌파구들에 내세워주시어 인민군대가 인민의 행복의 창조자로써의 본분을 다하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습니다.

≪오늘 우리 인민군 군인들은 ≪조국보위도 사회주의 건설도 우리가 다 맡자.≫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나라의 부강발전과 인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위대한 창조물들을 도처에 일떠세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민의 보위자, 인민의 행복의 창조자인 우리 인민군 군인들의 크나큰 자랑이고 영예입니다.≫

이와 같이 지적하시었습니다. 오늘 우리 인민군대는 조국보위 임무 뿐 아니라 사회주의 경제건설에서 제기되는 중요한 과업들도 맡아 해제끼는 말그대로 혁명의 주력군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혁명의 주력군으로써의 인민군대의 이러한 역할은 군대가 가장 어려운 시기에 혁명과 건설의 주공전선에서 닥쳐드는 위험도 막아 나서고 제기되는 큰 일감도 해제껴야 한다는 선군정치의 근본원리에서부터 출발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고난의 행군, 강행군의 주공전선에 인민군대를 세워주시어 인민군대가 실재적으로 혁명의 주력군으로 역할을 하도록 이끌어 주시었습니다.

그러면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 인민군대를 경제건설의 중요 돌파구들에 내세워주신 의도가 무었이겠는가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인민군대가 경제사업을 추켜세우는 과정을 통하여 혁명적 군인정신이 온사회에 차넘치게 하자는데 있었습니다. 우리 인민군대의 중요한 사상정신적 특징인 혁명적 군인정신은 위대한 장군님을 수반으로 하는 혁명의 수뇌부를 목숨바쳐 사수하려는 성세방패정신이고 총폭탄정신이며 장군님의 명령지시에 대한 결사관철의 정신,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정신이며 대중적 영웅주의와 고결한 희생정신입니다. 이러한 혁명적 군인정신이 온사회에 차 넘쳐야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정치가 철저히 확립되고 구현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어려운 경제적 난국을 뚫고 강성대국 건설에서 위대한 전환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로부터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인민군대를 경제건설의 중요 돌파구들에 내세우신 것입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인민군대를 경제건설의 중요 돌파구들에 내세워 주신 것은 다음으로 군민관계에서 새로운 전환을 마련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밑뿌리를 더욱 튼튼히 다지자는데 있었습니다. 우리 공화국은 자본주의사회와 달리 자기식의 독특한 밑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혼연일체입니다. 이 혼연일체가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불패의 것으로 되자면 조국보위는 물론 사회주의 건설에서도 자기의 위력을 충분히 발휘하여야 합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혁명의 주력군인 인민군대가 경제건설의 주공전선을 맡아가지고 인민들과 고락을 함께 나누며 돌파구를 열어나간다면 이 과정에 군대와 인민의 사상의 일치, 투쟁기풍의 일치가 이루어져 군민관계에서는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고 우리 사회의 밑뿌리는 더욱 튼튼히 다져질 것이라고 보셨습니다. 이로부터 장군님께서는 강성대국건설의 주요돌파구 마다에 인민군대를 내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인민군대가 경제건설에 중요 돌파구를 열어 나가도록 어떻게 이끄셨는지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이 시간에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강성대국건설의 돌파구인 식량문제와 전기문제를 풀기 위한 투쟁에 인민군대를 내세우시고 정력적으로 이끌어 주신 데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인민군대가 식량문제를 풀기 위한 투쟁에 돌파구를 열어 나가도록 정력적으로 이끄신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일혁명시기의 고난의 행군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1990년대 고난의 행군, 강행군에서도 가장 초미의 문제로 제기된 것은 식량이었습니다. 제국주의자들은 우리가 몇 해 째 계속되는 자연재해로 해서 식량난을 겪고 있는 것을 기화로 우리식 사회주의를 말살하려고 악랄하게 날뛰고 있었습니다. 이로부터 농사를 잘짓는 것은 식량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단순한 경제실무적 사업이 아니라 적들의 반공화국, 반사회주의 책동을 짓부시고 인민대중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를 옹호 고수하기 위한 그런 심각한 정치투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식량문제해결이 가지는 정치적 중요성을 깊이 헤아리시고 인민군대가 농업부분에 나아가 돌파구를 열어나가도록 하시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86(1997)년 3월 18일 인민군 지휘성원들에게 올해 우리 앞에 나선 기본 과업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로 농사를 잘 지어 식량문제를 결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라고 하시면서 인민군대가 올해 농사를 완전히 책임지는 입장에서 농촌지원사업을 잘 짜고들데 대한 간곡한 가르치심을 주시었습니다. 그리고 그 해 4월 13일에는 인민군지휘성원들을 또 다시 부르시어 농촌지원전투와 관련한 과업과 방도들을 제시해 주시면서 여기서도 특히 농촌지원에 동원된 군인들이 혁명적 군인정신을 높이 발휘할 데 대해서 강조하시었습니다. 장군님께서는 혁명적 군인정신을 높이 발휘하는 것은 올해 농사를 잘 짓기 위한 근본방도의 하나이라고 하시면서 농촌지원사업에 동원된 군인들이 ≪최고사령관의 명령을 관철하기 전에는 조국의 푸른하늘을 보지말자≫는 구호를 들고 안변청년발전소 건설에서도 영웅적 위훈을 떨친 군인 건설자들의 그 정신, 그 기백으로 농촌지원 사업을 잘해서 알곡생산을 높이는 데서 한 몫 단단히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사상과 의도를 심장깊이 새긴 인민군 군인들은 농촌지원사업에 동원된 첫날부터 장군님께서만 가르쳐 주신데로만 일해나갔습니다. 그들은 농촌에 나가 배낭도 풀기전에 영농기구수리부터 하고 거름생산을 비롯한 영농준비를 빈틈없이 갖추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모내기가 시작되었을 때에는 낮과 밤이 따로 없이 전투를 벌려 그 어느 해보다 모내기를 빨리 끝냈고 연이어 진행된 김매기에서도 일찍이 있어 본적이 없는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땀흘려 가꾼 농작물이 해일에 의해서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었을 때에도 허리까지 치는 감탕에 뛰어들어 돌을 쌓고 흙가마니를 날랐습니다. 그리고 물이 터지면 몸을 드리대어 막으면서 제방을 쌓았습니다.

농촌지원전투에 참가한 인민군들의 투쟁이 얼마나 사람들을 감동시켰는지, 가을 한 벼이삭을 가리켜 농민들은 ≪이것은 낟알이 아니라 군인들의 피와 땀이고 정신≫이라 했습니다. 그 해 11월 2일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인민군 지휘성원들에게 올해 농사도 괜찮게 지었다고 하시면서 특히 올해 농사에서 인민군 군인들이 수고를 많이 했다고 그들은 올해 농사를 인민군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지을 데 대한 당의 지시를 심장깊이 세기고 혁명적 군인정신을 발휘하여 좋은 농사작황을 마련하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치하해 주시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농사경험에 기초해서 다음해 농사를 잘 지어 알곡생산을 높일 데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이러한 정력적인 영도에 의해서 인민군 군인들은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 농촌지원사업을 적극 벌려 식량문제를 해결하는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다음으로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께서 인민군대가 전기문제를 풀기 위한 투쟁의 돌파구를 열어나가도록 현명하게 이끄신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난의 행군, 강행군 시기 우리 공화국의 전력사정은 매우 긴장했습니다. 주체86(1997)년의 경우만 놓고 봐도 예년에 없는 왕가뭄이 들어 나라의 전력생산에서 큰 몫을 맡고 있는 수력발전소들이 제대로 돌아가지 못해서 전력사정이 매우 긴장해 졌습니다. 화력발전소들도 사정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석탄을 재대로 보장해주지 못하는데다가 발전설비들의 대보수주기가 훨씬 지난 상태여서 전력생산이 오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물문제로 수력발전소들이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는 조건에서 긴장한 전력문제를 푸는 결정적 방도는 화력발전소에서 전력생산을 늘리는 것이였습니다. 여기서도 기본은 북창화력발전연합기업소를 만부하로 돌리는 것이였습니다. 북창화력발전연합기업소는 우리 공화국의 화력발전소들 가운데서 제일 큰 기업소로써 긴장한 전기문제를 어떻게 푸는가 하는 것은 이 기업소의 전력생산문제와도 중요하게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공화국의 전력생산실태를 깊이 요해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86(1997) 10월 23일 북창화력발전연합기업소를 혁명의 기둥이며 주력군인 인민군대에 맡겨주시고 정력적으로 이끌어 주시었습니다. 장군님께서는 인민군대에서 각급부대들에 있는 공병구분대들을 북창화력화력발전연합기업소와 연관된 탄광들에 동원하여 예비채탄장 건설과 석탄생산을 도와주며 발전소를 돌리는데 필요한 화력용 중유를 원만하게 수송보장하기 위한 혁명적 대책을 세워주시었습니다. 그리고 전력생산을 늘리는데서 기본은 탄광들에서 석탄생산을 늘리는 것이라는 것을 깊이 헤아리시고 탄광들에 재대군인들을 보내주어 그들이 석탄생산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도록 이끌어 주시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87(1998)년 1월 1일 설날에도 인민군 지휘성원들에게 북창화력발전연합기업소에 전력생산문제와 관련한 간곡한 가르치심을 주시었습니다. 이날 장군님께서는 인민군대에서 이미 받은 과업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전격적으로 벌릴 데 대하여 지적하시고 나서 북창화력발전연합기업소의 전력생산을 늘리자면 정무원(오늘의 내각을 말합니다.)일꾼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정무원과 군대가 합심해서 긴장한 전력문제를 풀기 위한 구체적인 과업과 방도들을 제시하셨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명령을 결사관철할 일념을 안고 떨쳐나선 인민군 군인들은 수천척 지하막장을 전투장으로 여기며 서슴없이 달려들어갔고 한 몸이 그대로 한줌의 석탄이 되고 하나의 침목이 되는 심정으로 맡겨진 임무수행에 달라붙었습니다. 북창화력발전연합기업소에 진출한 인민부대들은 전력설비보수공사와 탄광들의 갱보수, 그리고 석탄생산 정상화를 위한 일판을 통이 크게 벌려놓고 전격적으로 내밀어 전력생산을 정상궤도 위에 올려 세웠습니다.

(12면에 계속)

통일연대 1주년 기념식

통일운동의 광범위한 연대체인 ≪6.15남북공동선언 실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통일연대≫(이하 통일연대)가 15일 창립 1주년을 맞이했다.

15일 오후 6시 기독교회관 2층 강당에서는 ≪통일연대 1주년 기념식과 2002자주통일결의대회≫가 민족민주운동단체 각계인사 2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행사는 남북공동선언의 성과로 구성된 통일연대의 2001년 한해를 돌아보고, 2002년 새로운 통일행보를 다짐하는 자리가 되었다.

고 문익환 목사의 미망인 박용길 장로의 대회사로 시작된 1주년 기념식은 김철 천도교 중앙교령과 손장래 민화협 상임대표의 축사로 이어졌다.

특히, 김철 천도교 중앙교령은 ≪어려운 시기에 통일운동에 앞장서온 통일연대 분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주위에서 염려는 있었지만, 통일운동에 앞장서 온 사람들과 손을 잡기 위해 이 자리에 왔다≫며 연대의 마음을 전해 참가자들의 많은 박수를 받았다.

이어 ≪북과 남의 애국역량이 단결하여 미국의 전쟁책동을 저지 파탄시키고 6.15공동선언을 더욱 지지관철해나가자≫고 호소한 북측 민화협에서 온 축하 편지를 통일연대 박순경 명예대표가 낭독했다.

다음으로, 전농, 민주노총, 한총련, 한청, 반미여성회 등의 통일연대 소속의 부문단체들의 결의발언 후 99년 방북대표였던 이성우, 황혜로씨가 나와 2년여만에 출소인사를 하는 순서가 진행됐다.

한총련 방북대표 황혜로 학우는 ≪각계각층의 어르신들과 함께 할 수 있어 많은 감동을 받고 있다≫고 소감을 전했고, 이성우 전국연합 방북대표는 ≪미국의 전쟁책동을 분쇄하고 조국의 통일을 위해 더욱 열심히 뛰겠다≫고 결의를 밝히기도 했다.

한총련 학생들과 희망새의 축하공연 후 한상열 통일연대 상임대표는 결의문을 통해 △6.15공동선언실현 △전국적 반미반전운동 △광범위한 민족대단결운동 △광범위한 연대연합을 통한 민간통일운동역량 강화를 2002년 통일연대의 목표로 선언했다.

또한 이날 기념식 행사전에 열린 대표자회의에서는 한상렬 상임대표를 상임대표자회의 의장으로 선출하고 상임공동집행위원장에 한충목, 고영대, 사무처장에 김이경, 대변인에 김성윤씨를 선출하는 등 간부진을 인선했다.

이날 행사는 신창균 옹의 만세삼창을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고 통일연대의 지난 1년 동안의 성과와 한계를 돌아보며 2002년 통일운동의 양적, 질적 성장을 위한 힘

한상렬 상임대표

찬 발걸음을 시작했다.

한편, 이날 1주년 기념식에 앞서 통일연대는 오후 4시 탑골공원에서 ≪6.15공동선언 이행, 새해맞이 남북공동모임 무산 규탄, 아리랑축전 대중적 성사를 위한 5차 범국민대회≫를 개최하고 ≪미국의 전쟁책동 규탄과, 아리랑축전을 민족의 화해와 단합의 자리로 만들 것≫을 다짐했다.

장동렬기자
통일뉴스 2002/03/16

11면에서 계속

또한 장암탄광, 진암탕광, 덕천탄광을 비롯한 10여개 탄광들의 침수갱들을 기본적으로 복구하고 굴진과 석탄 생산실적을 높은 수준에로 끌어올렸습니다.

참으로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현명한 영도밑에 경제건설의 중요한 돌파구를 열기 위한 인민군 군인들의 영웅적 투쟁에 의해서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 어려운 난국을 뚫고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투쟁에서는 새로운 혁신이 일어나고 강성대국건설의 튼튼한 도약대가 마련될 수 있었습니다.

인민군대가 혁명의 주력군으로써 혁명과 건설을 앞장에서 밀고 나가고 있는 우리 공화국에 대해서 외국의 한 방송은 ≪지금 북조선의 모든 양상은 **김정일**최고사령관의 군 유일중심의 특이한 공산주의 강경정치로 펼쳐지고 있다. 군대는 이 나라 사회주의정치실체를 고수하는 유일한 주력군으로 되고 있을 뿐아니라 북조선이 처한 모든 경제적 난관을 극복하는 말그대로 최고사령관의 돌격대, 주력부대로 활동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우리 공화국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영도밑에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에 그러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인민군대를 혁명의 주력군, 기둥으로 내세워 주체의 사회주의강성대국을 건설할 것입니다.

그럼 이 시간 강의는 이만하겠습니다. 다음시간에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민간무력의 전투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조직영도하신데 관해서 강의해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 공연작품 완성단계

5월1일경기장에서 련일 종합연습 진행

2장 2경의 한 장면

3장 3경의 한 장면

4월말부터 5월1일경기장에서 두달간에 걸쳐 진행되는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창작이 이제 곧 완성단계에 들어 선다.

강능수문화상에 의하면 공연연습은 3월에 들어 종합단계에 들어 갔으며 20일경에는 완성단계로 들어 서고 4월초에는 최종단계에 들어 간다고 한다.

방풍막이 씌여 진 5월1일경기장에서는 밤낮없이 매일 배경대와 무대, 음악, 조명이 종합된 연습이 계속되고 있다. 공연은 저녁에 진행되는바 조명과의 배합을 조절하는 관계로 이곳에서의 종합연습은 야밤 12시까지 진행되고 있다.

5월1일경기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종합연습의 일부는 3월 7일 중국, 홍콩, 마카오 ≪아리랑≫관광고찰단에 처음으로 공개되였는바 중국 광동성 중산시 해외려유공사 경리 양영매씨는 황홀경과 아름다움의 절정을 이룬다고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14일에는 종합연습이 ≪조선신보≫기자단에 단독으로 공개되였다.

그 장면은 2장 2경과 3장 3경.

2장 2경에서는 1,500여명의 유치원생들과 인민학교 1학년생 남녀가 출연, 야영생활을 즐기는 내용으로 되였다.

마지막부분에서는 민족옷을 입은 수십명의 출연자가 줄넘기기교를 피로, 민족적색채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또한 3장 3경에서는 약 1,500명의 녀성근로청년들이 출연하여 평양의 야경을 형상하였다. 거대한 환등막으로 변한 배경대에는 평양의 야경이 영사되고 무대에는 록색, 푸른색, 분홍색, 빨간색, 보라색 등 여러 색갈의 조명이 비쳐 졌으며 전광장식된 수십개의 가로수가 꽃다발로 변하였다.

본 공연에서는 출연자들이 손에 든 장치물이 빛장식되고 구조물도 장치되여 더욱 화려한 광경을 펼쳐 보인다고 한다.

공연은 서장과 종장, 4개의 장에 10개의 경으로 구성되고 상연시간은 1시간 20분정도이다.

5월1일경기장에서는 해외손님들을 위한 자리를 꾸리는 준비도 한창 진행중이다. 4월초에는 완성된다고 하는데 초대석이 특등석으로, 초대석 뒤가 1등석으로, 초대석 앞이 2등석으로, 1등석 량옆이 3등석으로 된다.

관광고찰단은 앞으로도 많이 조선을 방문할것이며 우리 나라 관광, 봉사부문에서는 지금 수많은 손님들을 따뜻이 맞이하기 위해 그 준비를 다그치고 있다.

련일 진행되고 있는 종합연습은 지금 평양시민들의 커다란 관심사로 되고 있다. ≪아리랑≫준비로 온 도시가 흥성거리는 가운데 시민들속에서는 공연관람을 위하여 조선을 방문하는 해외동포, 외국인들과의 뜻 깊은 상봉에 대한 기대가 고조되고 있다.

강종석, 강이룩기자
조선신보 2002/03/16

부평미군기지 반환 시위

3월15일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 체결을 앞두고 ≪부평미군기지 반환과 주한미군문제해결을 위한 월례연대집회≫ 공동개최 단체에서는 부평미군기지 반환을 위해 국방부 면담 및 미대사관 앞 1인 시위를 진행하였다. 이 투쟁은 용산, 의정부, 송파, 평택 등 수도권에 있는 미군기지 관련 투쟁주체들과 공동으로 진행하였다. 면담에서 3월15일로 예정되었던 협정서 체결은 3월말에 이루어질 것으로 확인되었다.

□ 국방부 면담결과

3월15일 국방부 민원실 휴게실에서 국방부와 면담이 진행되었다. 원래는 국방부장관 면담을 신청하였으나 장관면담 이전에 자신들을 먼저 만나 면담을 했으면 한다는 국방부 측의 요청받아 면담이 진행되었다. 이 자리에는 국방부 측에서는 LPP 협상을 맡고 있는 용산사업단 계획장교 김동대 중령, 용산사업단 이정수 사무관이 참석하였으며 용산미군기지반환운동본부 김종일 공동집행위원장,용산미군기지반환및송파이전반대시민대책위 김현종 집행위원장, 미군기지신설백지화와조건없는반환을위한의정부범시민대책위 백승규 대외협력국장, 민족사랑청년노동자회 류한경 사무국장, 인천시의회 신맹순 의원, 인하대 김영규 교수, 사회당 백인성 인천시지부장이 함께하였다.

이 자리에서 국방부측에서는 공개질의서에 대한 답변서를 준비하여 나왔다. 그러나 국방부 답변은 ≪이전지역과 이전비용은 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부평, 의정부, 부산, 대구지역에 대해 긍정적으로 협의중이다. 주민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방안을 연구중이다≫는 애매 모호한 글귀만 늘어놓고 있어 미군기지 즉각 반환과 그 비용을 한국정부가 부담하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을 미측에 밝힐 의지는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

면담에서 김동대 중령은 ≪부평미군기지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해도 좋다. 그러나 미군기지 이전을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니 원인제공을 한 우리가 대체부지와 이전비용을 대야한다. 매향리 등과 같은 훈련장은 대체부지가 없어 곤란하다. 거의 내용이 만들어졌고 3월말 사인만을 남겨둔 상태다. 그러니 공개토론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밝히었다. 1시간30분 가량 진행된 면담은 국방부가 미국의 입장을 대변하러 나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 하였다.

75만평 추가공여와 이전비용을 한국정부가 부담하는 것은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며, 부평을 비롯한 전국의 모든 미군기지는 즉각 반환되어야 한다.

면담 후 류한경 사무국장과 신맹순 의원, 김영규 교수는 국방부가 부평미군기지 반환입장을 분명히 갖고 있는지를 묻는 ≪공개질의서≫와 ≪왜 반환되어야 하는지를 정리한 자료≫와 인천지역 각계 인사들의 서명을 받은 ≪서명지≫를 민원실에 접수하였으며 부평미군기지가 완전히 반환될 때까지 투쟁하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 부평미군기지 반환을 위한 미대사관 앞 릴레이 1인 시위결과

3월11일부터 3월15일까지 용산미군기지와 미대사관 앞에서는 미군기지반환을 위한 릴레이 1인시위를 전개하고 있다. 3월13일 미대사관 앞에서는 인천지역 제 시민사회단체의 부평미군기지 반환을 촉구하는 1인 시위가 진행되었다.

오전10시부터 진행된 1인 시위는 인천대 공과대학생회 김백수 부회장, 사회당 백인성 인천시지부장, 민족사랑청년노동자회 김강연 회원, 신맹순 의원, 부평미군부대공원화추진시민협의회 곽경전 사무국장, 마지막에는 민주개혁인천시민연대 오순부 상임대표가 진행하였다.

≪16만평에 미군은 단, 9명! 부평미군기지 즉각 반환하라!≫는 피켓을 목에 걸고 진행된 이 날 1인 시위에 곽경전 사무국장은 자신의 생일날 부평미군기지 반환투쟁을 하여 뜻깊은 생일을 보내게 되었다는 소감을 밝혀주었다. 신맹순 의원과 오순부 대표는 전경들이 몇 겹으로 미대사관을 둘러싸고 있는 모습을 보며 ≪도대체 어느 나라 전경인지 알 수가 없다. 누구로부터 누구를 지키겠다는 것인지 한심하다. 이게 바로 한국이 미국의 식민지임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라며 분개하였다.

민족통신 2002/03/15

정부 ≪1인시위≫ 금지추진에 시민단체 반발

정부는 15일 이한동 국무총리 주재로 치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현재 추진중인 집시법 개정안에 1인 시위를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가 집시법 개정이라는 명목으로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집시법 개악을 강행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 집시법 개악 반대 움직임이 더 거세질 전망이다.

정부는 치안관계장관회의에서 ≪요즘의 집회시위가 점점 더 불법·과격의 양상을 띄게 되면서 국민 생활에 큰 피해를 주고 있다≫ 현재 추진중인 집시법 개정에 1인 시위, 도심지 집회·행진 등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녹색연합 자연생태국의 윤기돈 간사는 ≪정부가 추진하는 집시법개정은 경찰들의 구미에 맞는 형식으로 바꾸는 것이며 시민단체와 시민과의 접촉 통로를 막는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만약 정부가 집시법개정을 강행한다면 시민단체들과 연대해서 개악을 반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 납세자 운동본부의 홍일표 간사는 ≪정부가 추진하는 집시법 개정안에는 그동안 시민단체가 추진해온 집시법 개정을 위한 연대운동 내용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아울러 ≪1인시위는 폭력이나 거리흐름을 막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으며 정부의 과도한 반응≫이라고 비판했다.

사회당 역시 정부의 집시법 개악 방침을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은영 수석 부대변인은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집시법 개정안을 ≪사람잡는 집시법≫이라고 비판하며 ≪언론의 힘도, 법률적 지원마저도 받기 힘든 사람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는 얼마 안되는 수단 중 하나인 집회시위를 제한하겠다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집회·결사·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이 부대변인은 ≪진정한 국민의 정부라면 국민의 의사 발로를 어떻게 하면 더 잘 보장해 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먼저 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유영재 사무처장은 ≪1인 시위는 그동안 평화적인 집회시위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기여해 왔다는 평가를 받아왔다≫며 ≪정부가 요구하는 평화집회마저 탄압하는 것은 집회 자체를 반대하는 정부의 모습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 사무처장은 ≪대부분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집시법 개악과 관련, 문제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며 ≪빠른 시일 안에 종합적 공동 대응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세옥기자
시민의 신문 2002/03/16

≪오월 시민법정≫에 미국 세운다

80년 광주 학살의 배후자로 지목돼온 미국을 심판하는 시민법정이 오는 5월 광주에서 개최된다.

80년 당시 미국의 신군부와의 결탁, 항쟁 진압과정 개입 등은 이미 학계에서 제기돼왔던 문제다. 시민법정을 계기로 수그러졌던 미국의 개입가능성을 두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광주학살을 배후조정한 미국의 책임 없이는 완전한 문제은 없다≫고 주장했다.

≪5.18 시민법정 추진위원회 발기인단(이하 발기인단)≫은 14일 오후 광주 YMCA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학살 명령 및 방조죄와 직접학살 예비 음모죄로 광주학살의 실질적인 책임자들을 심판하는 시민법정을 오는 5월 18일 광주에서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인사말에 나선 조비오 신부는 ≪이번 시민법정은 미국이 인권과 평화라는 이름하에 자행해온 만행을 심판하고 미국의 만용과 치부를 드러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진실은 밝혀지고 말 것이다≫고 말했다.

완전한 진상규명은 미국의 책임 묻는 것

한상렬 통일연대 상임공동대표는 회견문을 통해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투쟁을 줄기차게 전개해 전두환, 노태우를 법정에 세웠다≫며 ≪이는 5.18을 독재정권과 관계로 의미를 축소시킨 면도 있지만 한국 민중의 힘을 보여준 승리였다≫고 말했다. 이어 ≪5.18의 완전한 승리를 위한 진상규명은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하고 있다≫면서 ≪광주학살에 깊숙하게 개입한 미국의 책임을 물어 광주시민과 전 민족의 이름으로 심판하고 사죄와 보상을 받아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발기인단이 시민법정에 세울 피고인은 최종 명령권자로 카터 행정부(당시 미 대통령 지미 카터), 배후조종자로 홀부르크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 현지 집행인으로 워컴 주한미군사령관 · 글라이스틴 주한미대사, 동족 학살자로 전두환 전 대통령 등 5명이다.

시민법정은 5.18 유족과 피해자 등이 원고가 되고 램지 클라크(74, 전 미 법무장관) 등 양심적인 전문가 등이 증인으로 나선다. 또 피고인을 대신해 ≪미국 책임론≫에 대해 반박할 변호인단을 구성하고 글라이스틴이나 워컴 등의 당시 발언 내용과 영상자료 등을 준비할 계획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의 이석태 변호사는 ≪지난 96년 5.18특별법 제정되고 신군부 세력에 대한 평가와 처벌은 일정 부분 됐지만 그 배후에 있었던 미국 문제는 그대로 남겨져 있다≫면서 ≪현실적으로 법적으로 다루기 힘든 부분이 있지만 시민법정을 통해 사실 주장, 법리공방, 엄격한 증거자료를 통해 권위있는 판결로 미국의 책임을 심판하는 계기 될 것≫이라고 밝혔다.

80년 5월 광주

시민법정에서는 지난 96년 공개된 한국 관련 극비문서 1749건 중 80년 5월 22일 백악관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 내용과 당시 주한미대사 글라이스틴과 미국무부 홀부르크 차관보 사이에 오간 비밀전문 내용 등도 근거자료로 제시할 계획이다.

≪시민법정 추진위원회≫ 발기인단에는 조비오, 송기숙, 문병란 씨 등 광주지역 원로들과 민변, 전국연합, 통일연대 등 전국 등 20여 개 시민사회단체 대표 107명이 참여했다. 구성될 ≪시민법정 추진위원회≫는 법조계는 물론 미국 전문가 등이 참여해 미국 책임론을 물을 근거자료를 수집, 분석함과 동시에 오는 4월에 주한 미 대사관을 상대로 이에 대한 미국측의 공식 답변을 요구할 예정이다.

한편 ≪미국 책임론≫에 대해 글라이스틴 등 미 행정부는 ≪광주진압을 위해 한국군부가 요청한 20사단의 이동요구를 승했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고 있지만, ≪미국이 가지고 있었던 한국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이 지극히 제한적인 것이었으며 20사단 이동승인은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등의 논지로 책임론을 반박하고 있다.

강성관기자
오마이뉴스 2002/03/15

BBC의 ≪모두 죽여라!≫ 국내방영

한국전쟁당시 노근리 학살사건 등 미군의 전쟁범죄 행위를 폭로한 영국 BBC의 다큐멘터리프로그램 ≪Killm all(모두 죽여라)≫이 마침내 오는 27일 오후 10시 EBS TV를 통해 국내에도 방영된다.

EBS는 16일 시사다큐 ≪움직이는 세계≫시간에 ≪BBC특별다큐멘터리-노근리보고서≫라는 부제로 노근리학살과 한국전쟁당시 미군범죄들에 대해 다룬 이 다큐멘터리를 긴급입수해 방영키로 결정했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달 1일 BBC 역사다큐멘터리프로그램 ≪타임워치≫를 통해 방영된 뒤 세계적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한 · 미 정부가 합동조사와 공동발표문을 통해 주장했던 ≪공식적인 학살 명령은 없었다≫는 주장을 뒤엎는 당시 관계자들의 증언과 미 국립문서보관소의 공문서 발견 등을 발굴했기 때문이다.

다큐멘터리에서는 ≪모든 피난민의 전선통과를 금지한다. 전선통과를 시도하는 모든 사람에게 발포하라. 여자와 어린이의 경우는 신중히 판단하라≫는 요지의 그동안 없어졌다던 미군의 공문서가 최초로 공개됐다. 또한 한국전쟁당시 포항 인근의 해안에서 미 해군함정의 발포로 4백여명이 학살된 사실과 미 공군이 육군의 요청으로 민간인에게 기총소사를 가한 사실도 밝혀졌다.

이 다큐메터리에 따르면 한국전쟁때 미군이 저지른 학살사건은 현재 61건이나 되나, 그중 미국정부가 학살행위를 부분적으로나마 인정한 것은 ≪노근리학살≫한 건 뿐이다.

방송계에서 이 다큐멘터리가 노근리학살에 관해 만들어진 프로그램 중 가장 중립적인 시각에서 사실(fact)에 입각하여 만들어졌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이 다큐멘터리를 방영하는 EBS의 ≪움직이는 세계≫는 국내방송에서는 드물게 진보적이면서도 균형 잡힌 시각의 해외 다큐멘터리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으로 평가받고 있다.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는 권영미PD는 ≪교육방송이 보도기능이 없는 채널이라 (정치권 등에) 얽매이는 점이 적어 가능하게 된 편성≫이라고 말하고 ≪늘 보편적이고 균형 있는 시각을 전하려고 노력중≫이라고 밝혔다.

다큐멘터리의 제목 ≪모두 죽여라≫는 학살당시 한 미군 사병이 장교에게 들었다는 ≪모든 것을 향해 발포하라, 모두 죽여라(Fire on everything, Killm all)≫라는 명령에서 따온 것이다.

≪Killm all≫의 한 장면

부시 2단계 테러전 확전결의 천명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은 15일 ≪미국은 아프간에서의 1단계 테러전을 끝내고 2단계 테러전에 돌입하고 있다≫며 ≪우리는 군사행동시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을 떠나 노스 캐럴라이나주 페이어트빌소재 포트 브래그 기지를 방문, 육.해.공군 특수부대원들이 운집한 가운데 연설을 통해 ≪우리는 1단계 테러전을 마쳤다≫고 선언하고 ≪우리가 돌입하고 있는 2단계 테러전은 장기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부시 대통령은 대량파괴무기에 언급, ≪우리는 대량파괴무기의 확산을 막아야만 한다≫며 ≪이는 한치의 오차도 있어서는 안되고 오판했을 경우 이로부터 교훈을 얻을 게 아무 것도 없기 때문≫이라며 대량살상무기 확산 저지를 위한 단호한 결의를 강조했다.

또 부시 대통령은 ≪거대한 도전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다≫고 전제, ≪우리는 장기전 국면에 와 있다≫며 미국의 군사행동은 확고한 목표와 치밀한 준비, 사려깊은 계획과 단호한 행동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부시 대통령의 그같은 결의는 지난 1월 국정연설에서 이라크 등을 겨냥한 대량파괴무기 확산 경고를 발한데 이어 외교력을 동원, 국제연대차원의 연합전선 구축에 박차를 가하며 대(對) 이라크 포위압박전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문명세계는 테러위협이 궤멸적 규모로 확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미국과 우리의 동맹국들은 이에 신중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부시 대통령은 ≪행동하지 않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못박고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위험스런 체제가 살인자들과 한 편이 돼 이 위대한 나라를 볼모를 잡으려는 기도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부시 대통령은 테러전이 장기화되더라도 테러리스트들이 ≪국제도망범≫으로 숨을 곳도 피할 곳도 그리고 도망칠 곳도 없도록 철저히 분쇄하겠다면서 테러전 수행을 위한 군예산 지원을 약속, 480억 달러규모의 국방예산 처리를 의회에 촉구했다.

김성수특파원
연합뉴스 2002/03/16

청년학생대중조직의 민주주의적 운영에 대하여 (2)

통일여명 편집위원 한철규 발췌 (편집국 보도 62호)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관료주의는 낡은 사회의 관리들이 인민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반인민적통치방법입니다.》 (**《김일성**저작집**》** 7권, 493페지)

관료주의는 착취사회의 산물이다. 관료주의는 원래 착취사회에서 반동적통치배들이 근로인민대중을 억압, 착취하기 위하여 쓰는 반인민적통치방법으로 발생되였다.

착취계급이 청산되고 근로인민이 나라의 주인으로 되여 있는 사회주의사회에는 관료주의를 낳는 사회계급적근원은 없다.

그러나 관료주의적잔재는 낡은 사회의 유물로서 일정한 기간 남아 있게 된다.

사회주의사회에서 관료주의가 나타나게 되는것은 일부 일군들의 머리속에 개인리기주의, 출세주의, 공명주의 등 낡은 사상 잔재가 남아 있는데 있다.

또한 그것은 일군들의 정치사상적식견과 실무수준이 어리고 능숙한 대중지도능력과 방법을 체득하지 못한 것과 관련된다.

관료주의는 여러가지 형태로 표현되는데 특히 일군들의 지도사업에서 많이 나타난다. 관료주의는 틀을 차리고 행세를 하면서 군중을 깔보고 교만하게 행동하며 자기의 직위를 타고난 벼슬자리처럼 생각하고 아래사람들의 사업을 옳게 지도하지 않고 되는대로 일하는데서 나타난다. 또한 직권을 악용하여 군중에게 호령하고 욕설하며 전횡을 부리는데서 나타난다.

관료주의는 또한 아래실정을 알아 보지도 않고 덮어놓고 주관주의적으로 내리먹이는데서 나타난다.

인간성이 없고 인민생활에 무관심한것도 관료주의의 표현이다. 관료주의는 혁명과 건설에 막대한 해독을 끼친다. 관료주의는 당의 로선과 정책을 외곡하고 그 집행을 방해하며 당의 전투력을 마비시킨다.

관료주의는 또한 인민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말살함으로써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없게 한다.

특히 관료주의는 당과 대중을 리탈시키고 전당과 전체 인민의 사상의지적통일단결을 방해한다.

관료주의를 철저히 극복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일군들이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여 혁명의 주인인 인민대중을 귀중히 여기고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혁명적 군중관점과 사업태도를 가져야 한다.

이와 함께 혁명적조직생활을 강화하고 자신을 끊임없이 단련하며 위대한 수령님식 사업방법의 요구대로 일하여야 한다.

관료주의를 철저히 극복하기 위하여서는 또한 일군들의 기술실무수준을 끊임없이 높이며 낡은 사업방법과 작풍을 없애기 위한 사상투쟁을 강화하여야 한다.
(관료주의, 정치사전)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민주주의란 한마디로 말하여 근로인민대중의 의사를 집대성한 정치입니다. 다시말하여 국가가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근로인민들의 의사에 따라 정책을 세우고 인민대중의 리익에 맞게 그것을 관철하며 근로인민대중에게 참다운 자유와 권리, 행복한 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여 주는것이 바로 민주주의입니다.》 (**《김일성**저작선집**》** 7권, 487페지)

민주주의는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국가활동의 기본방식이다. 국가활동에서 민주주의를 철저히 실시하여야 근로인민대중에게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지위를 원만히 보장할수 있으며 혁명과 건설에서 근로인민대중의 역할을 높일수 있다.

민주주의는 철저히 계급적성격을 띤다. 계급사회에서 《만민에 의한 민주주의》란 있을수 없다.

민주주의에는 크게 두가지 형태가 있다.

→

광고

신입생들에게 권고하는 교양서 10선

인생의 선배로서 대학의 선배로서 신입생들의 입학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누구나 다 인생의 황금기로 여기는 대학시절이기에 그 운명을 결정하는 신입생시절은 가장 빛나는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신입생들은 대학시절을 뜻깊게 보내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대학시절의 길잡이가 되고 인생의 좌표가 될 좋은 책들을 많이 읽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우리들이 신입생들에게 자기 운명의 주인이 되고 자기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기 위해서 반드시 읽기를 권고하는 교양서적들입니다. 신입생여러분들은 이 열 권의 양서를 정독함으로써 향후 무슨 책을 읽고 어떻게 대학을 보내야 할 것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란 무엇인가, 인류에게 이보다 오래되고 진지한 질문은 없을 것이다. 사람의 본성에 대하여 모르고서 어찌 자기 운명의 주인이 되고 자기 운명을 개척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책은 사람의 본성에 대한 장구하고 복잡한 논쟁에 대하여 매우 간명하게 해설해준다. 신입생들은 ≪재미있는 철학강의≫과 ≪우리 시대의 인생관≫, 그리고 ≪사람이란 무엇인가≫를 통하여 우리 시대의 참다운 세계관, 인생관라는 진리의 문을 열게 될 것이다.

우리는 자본주의사회에 살고 있고 이 사회는 벌써 백수십년전에 과학적으로 해부된 바 있다. 거대한 사회를 총체적으로 분석하며 그 본질을 밝힌다는 것이 쉬운 일일 수는 없다. 그런데 이 책은 자본주의사회의 숨은 비밀을 알기쉽게 가르쳐주며 노동이 얼마나 신성한가를 일깨워준다. 특히 사회과학전공의 신입생이라면 반드시 읽어야 할 필독서.

그 하나는 사회주의적민주주의이며 다른 하나는 부르죠아민주주의이다.

참다운 민주주의는 근로인민대중을 위한 민주주의, 사회주의적민주주의이다.≫(민주주의, 정치사전)

≪중앙집권적인 통일적지도와 광범한 대중의 민주주의적창발성을 밀접히 결합시킨 로동계급의 혁명조직들의 조직활동원칙.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의 민주주의중앙집권제라는것은 광범한 당원대중의 의사를 모아 로선과 정책을 세우고 당지도부를 선거하며 그 지도부가 세워 진 로선과 정책을 실천하기 위한 투쟁을 유일적으로 지도하는것을 말합니다.》 (**《김일성**저작집**》** 13권, 200페지)

민주주의중앙집권제는 로동계급의 당 및 국가, 근로단체들의 조직과 활동의 중요한 원칙의 하나이다. 인민대중은 혁명운동의 주인이며 혁명발전을 추동하는 결정적요인이다.

세상에서 가장 힘 있고 지혜로운 존재는 인민대중이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수백만 인민대중의 힘에 의하여 건설된다. 따라서 혁명운동에서 광범한 인민대중의 의사를 구현하는것은 로동계급의 혁명조직들의 근본요구이다.

한편 인민대중의 힘을 조직적단결의 힘이며 그것은 하나의 사상, 하나의 규률을 전제로 한다. 력사상 가장 광범한 군중이 참가하며 거창한 사회적변혁을 이룩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은 인민대중의 힘을 하나의 목적실현에로 집중시키는 지도의 유일성과 통일성을 요구한다.

따라서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에서는 광범한 대중의 의사를 구현하는 동시에 대중에 대한 지도의 유일성을 옳게 보장하는것이 원칙적인 문제로 나선다.

로동계급의 당 및 국가, 근로단체들의 조직활동원칙으로서의 민주주의중앙집권제의 근본사명은 혁명투쟁에서 로동계급의 수령의 유일적령도를 확고히 보장하는데 있다. 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힘과 지혜를 최대한으로 발양시키고 혁명과 건설에 대한 중앙집권적지도를 실현하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수령의 혁명사상, 유일적령도를 철저히 구현해 나가기 위한 결정적담보이다.

민주주의중앙집권제는 민주주의와 중앙집권제의 유기적인 결합이다. 중앙집권제는 혁명조직의 사상의지적 및 행동의 완전하고도 무조건적인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조직활동원칙이다.

중앙집권제의 근본요구는 로동계급의 당, 국가, 근로단체 등 프로레타리아독재체계전반과 전체인민이 수령의 유일적령도밑에 한결같이 움직이는 강철같은 혁명적규률을 세우는것이다.

중앙집권제는 개인은 조직에, 소수는 다수에, 아래조직은 웃조직에, 전체 성원과 조직은 중앙에 복종하며 웃기관은 아래기관의 사업을 장악지도하고 검열통제하는데서 표현된다.

중앙집권제는 혁명조직의 본성을 고수하고 사명을 다하기 위한 근본조건으로 된다.

민주주의는 광범한 대중의 의사와 요구를 철저히 구현하며 그들의 창발성을 높이 발양시키기 위한 혁명조직의 조직활동원칙이다. 민주주의원칙의 기본요구는 혁명조직의 조직과 활동에서 혁명적군중로선을 철저히 관철하는것이다.

민주주의원칙은 기층조직으로부터 중앙에 이르기까지 모든 지도기관들이 민주주의적으로 선거되며 선거받은 일군들이 선거자들앞에서 자기 사업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모든 조직성원들이 조직의 강화발전을 위한 창발적의견들을 충분히 제기하는데서 표현된다.

민주주의원칙은 아래기관들의 창발성을 보장하며 대중의 창조적적극성을 적극 불러 일으키게 한다.

민주주의중앙집권제에서 민주주의와 중앙집권제는 유기적인 통일을 이룬다.

로동계급의 당이 민주주의중앙집권제를 관철하는 기본방식은 중앙집권제원칙을 확고히 선행하는 원칙에서 민주주의를 보장하는것이다.≫(민주주의중앙집권제, 정치사전)

≪대중조직이 계급적 이익을 옹호하는 민주적 조직으로 되려면 조직운영과 활동에서 민주주의가 높이 발양되어야 한다.

대중조직은 어디까지나 대중 자신의 자원적 조직이다. 그러므로 대중조직은 광범위한 대중의 자발적 참여를 적극 견인해 내고 대중 자신 스스로가 의사를 결정하고 그것을 실현하는 원칙에서 운영되어야 대중의 창조적 열의와 적극성을 발양시키는 강위력한 조직이 될 수 있다.

광범한 대중의 의사를 수렴하고 그들 스스로의 결정과 참여의 폭을 넓혀나가지 않는다면 대중조직이 대중과 유리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 수 없다.

. . .

민주주의적 대중조직이란 이처럼 노동자, 농민의 계급적 이해를 옹호하고, 민주주의 변혁단계의 요구를 반영하며, 민주주의적 방식으로 운영되는 조직을 말한다.≫(대중성, 민주주의성, 합법성의 원칙, 주체의 한국사회변혁운동론)

(내일 계속)

하나 민족도 나

조국통일3대헌장

민족대단결과 그 구심점 (2)

김일성주석과 민족대단결

민족의 단합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의 중심의 작용 즉 구심력(求心力)에 의해 민족성원들이 사상의지적으로, 조직적으로 정연하게 결속되여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면 민족대단결은 어떠한 구심력의 작용에 의해 성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다.

어떠한 사회적 운동에서든지 단결을 산수적 결합이 아닌 사상의지적 통일을 의미한다. 민족대단결의 경우는 각이한 요구와 리해관계를 가진 민족성원들이 민족적 리념에 기초하여 공동의 목적과 리해관계를 가지고 단합되는 것을 뜻한다. 계급, 계층의 요구와 리해관계보다 우위에 놓이며 민족성원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민족공동의 요구와 리해관계를 반영한 리념이 제시될 때 민족성원들은 누구나 자기자신과 집단, 계급의 리익보다 민족의 리익을 앞자리에 내세우고 그것을 위한 투쟁에 다같이 동참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민족공동의 리념은 민족자체의 힘으로 자기 민족문제를 해결하는 민족자주사상이다. 그것은 바로 민족의 생명이 자주성이기 때문이다. 어느 특정한 계급, 계층의 리익을 대변하는 리념은 민족공동의 리념이 될 수 없으며 민족의 모든 성원을 애국애족의 정신으로 감화시키고 민족자주권의 수호를 대의명분으로 모두가 사상의지적으로 굳게 뭉치게 할 수 있는 것은 민족자주사상이다.

전민족의 대단결로 민족문제를 올바로 해결해 나가자면 주체의 민족관에 기초한 민족자주사상을 내세워야 하는 것이다.

전민족의 대단결을 이루어내려면 민족공동의 리익을 바로 내세울 뿐아니라 어떠한 사회적 운동에서의 단합이든지 그것이 각이한 요구와 리해관계를 가진 각계각층의 광범한 인민대중의 실무적 결합이 아닌 조직적 통일인것만큼 전민족대단결도 각계각층의 광범한 군중의 조직화를 이루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력사는 민족공동의 리념을 제시하고 그에 기초하여 각계각층 군중의 조직화를 실현하는 문제는 지도자의 올바른 령도에 의해서만 성과적으로 이루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미 우에서 언급하였지만 1927년 2월에 창립된 신간회(新幹會)가 사상과 리념이 서로 달라도 민족자주권을 위한 길에서 공산주의자들과 민족주의자들이 합작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는 하였으나 불과 몇 년을 넘기지 못하고 해체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중요하게 공산주의자들과 민족주의자들을 투철한 민족자주사상에 기초항 굳게 결합시키며 능숙하게 운영하고 이끌어갈만한 지도력량이 없었던 것이다.

민족대단결에서 지도문제는 다름아닌 민족의 령도자에 관한 문제이다. 민족운명개척의 길을 밝혀주는 민족자주사상을 지니고 각이한 계급, 계층을 조직적으로 결속해나갈 특출한 능력과 수완 그리고 민족성원전체를 한품에 안아 보살피고 키우는 높은 덕망을 지닌 민족의 대표자로서의 수령에 의해서만 민족성원들을 하나의 대오에 결집시켜나갈 수 있는 것이다. 령도자의 사상의 위대함, 지도능력의 비상함, 인품의 고결함은 광범한 대중에게 커다란 감화력, 친화력으로 되며 높은 권위를 지닐 수 있게 하는 원천으로 된다.

수령의 권위는 그가 지니고있는 특출한 자질과 품격 그리고 민족문제해결을 위한 투쟁에서 이룩한 업적과 높이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하여 민족의 령도자가 지니는 권위가 다 같은 것은 아니다. 그것은 령도자가 제시한 향도리념(嚮導理念)의 진리성과 새활력, 그 령도의 현명성과 업적의 위대성, 인품의 고결성에 의해 그 높이가 좌우되는 것이다.

민족대단결의 폭과 심도는 다름아닌 어떠한 높이의 권위를 지닌 수령을 그 중심에 모시는가에 의해 결정된다.

(계속)